

2020

정책연구 2020-15

전북 청년 실태분석을 통한 주거 ·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오병록 · 이강진 · 이대성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15

전북 청년 실태분석을 통한 주거 ·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오 병 록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이 강 진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 대 성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20JU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이론고찰	11
1. 청년 개념 및 범위	11
2. 청년 특성	13
3. 청년정책 대상	14
제2절 정책 동향	18
1. 정부정책 동향	18
2. 정부정책	25
제3절 청년정책 실태	32
1. 주거분야 정책	32
2. 자산분야 정책	35
3. 결혼·육아 정책	37
4. 문화분야 정책	38
5. 건강분야 정책	39
제4절 선행연구	40

제3장 전라북도 청년 실태	43
제1절 청년 현황	45
1. 청년 인구 및 가구	45
2. 청년 경제활동	49
3. 청년 결혼 및 출산	51
4. 청년 문화예술	53
5. 청년 건강	54
6. 청년 이동현황	55
제2절 청년 의식	57
1. 주거분야	57
2. 금융자산	59
3. 결혼·육아	62
4. 문화	69
5. 건강	72
제3절 전북 청년 의식	74
1. 조사 개요	74
2. 조사결과	75
제4절 전북 청년 실태와 과제	80
1. 전북 청년의 감소	80
2.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80
3. 경제적 어려움	80
4. 결혼 등 생애전환기에 지원	81
5. 청년 문화 수요	81

제4장 청년 지원 방안	83
제1절 방향 및 전략	85
1. 청년 지원 방향	85
2. 청년 지원 전략	87
제2절 전략별 정책 방안	89
1. 청년수요 대응 지원	89
2. 정책소외 대상 지원	101
3. 생애주기 맞춤 지원	105
4. 보편적 지원	111
제5장 결 론	115
제1절 연구 종합	117
1. 전북 청년 실태	117
2. 청년 지원 방안	119
제2절 정책 제언	121
참고문헌	123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청년정책 분류체계(안)	15
〈표 2-2〉 청년문제 프레임과 청년정책	18
〈표 2-3〉 청년 대책 현황	19
〈표 2-4〉 문재인정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22
〈표 2-5〉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	24
〈표 2-6〉 전라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29
〈표 2-7〉 청년정책사업 중 주거 사업 현황	32
〈표 2-8〉 청년정책사업 중 자산 관련 사업 현황	35
〈표 2-9〉 청년 지원 관련 선행연구	41
〈표 3-1〉 청년(18~39세) 인구(2019)	45
〈표 3-2〉 청년 가구 현황(2018)	46
〈표 3-3〉 청년의 거주 주택형태(2018)	47
〈표 3-4〉 청년(15~39세) 경제활동 현황(2019.12)	49
〈표 3-5〉 청년(15~39세) 경제활동 현황(2019.12)	50
〈표 3-6〉 청년 결혼 현황	51
〈표 3-7〉 청년 연령별 출산율	52
〈표 3-8〉 시도별 문화 예술 활동 (2018)	53
〈표 3-9〉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54
〈표 3-10〉 청년 이동자수(2019)	55
〈표 3-11〉 전북 청년 연령 및 전입지별 순이동자수 현황(2019)	56
〈표 3-12〉 1순위 청년지원 정책 응답률(%)	57
〈표 3-13〉 임차 가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58
〈표 3-1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59
〈표 3-15〉 건축 소비 지출 항목	60
〈표 3-16〉 일과 가정의 중요도	61
〈표 3-17〉 결혼에 대한 견해	62
〈표 3-18〉 결혼 의향	63
〈표 3-19〉 결혼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63

〈표 3-20〉 결혼을 망설인 이유	64
〈표 3-21〉 출산 의향	65
〈표 3-22〉 출산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65
〈표 3-23〉 결혼을 망설인 이유	66
〈표 3-24〉 결혼을 망설인 이유	67
〈표 3-25〉 여성취업 장애요인	68
〈표 3-26〉 주중 여가활동	69
〈표 3-2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70
〈표 3-28〉 정북청년 실태	82
〈표 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95
〈표 4-2〉 육아 및 돌봄 시설 비교	109
〈표 4-3〉 전북 시·군 간 통근·통학 현황	113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특정분야의 기존 정책 분석 예시	6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7
〈그림 2-1〉 청년의 다양한 연령 범위	12
〈그림 2-2〉 광역지자체별 청년의 연령 범위	12
〈그림 2-3〉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현황	21
〈그림 2-4〉 ‘청년의 삶 개선방안’ 추진방향	23
〈그림 2-5〉 사업 영역별 사업 수 비율	25
〈그림 2-6〉 사업 영역별 사업 예산 비율	25
〈그림 2-7〉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 연령에 따른 현황	25
〈그림 2-8〉 청년정책 사업의 특정 대상에 따른 현황	26
〈그림 2-9〉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에 따른 현황	26
〈그림 2-10〉 청년정책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른 현황	27
〈그림 2-11〉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내용에 따른 현황	27
〈그림 2-12〉 연령 및 소득별 청년주거 지원정책	34
〈그림 2-13〉 연령 및 소득별 청년자산 지원정책	36
〈그림 3-1〉 청년 1인가구 거주형태	48
〈그림 3-2〉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정책	71
〈그림 3-3〉 청년 병원 이용률	72
〈그림 3-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72
〈그림 3-5〉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73
〈그림 3-6〉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	73
〈그림 3-7〉 응답자 현황	75
〈그림 3-8〉 정책지원 필요시기	76
〈그림 3-9〉 우선 지원 필요 분야	76
〈그림 3-10〉 주택관련 우선 필요사업	77
〈그림 3-11〉 자산관련 우선 필요사업	77
〈그림 3-12〉 결혼관련 우선 필요사업	78

〈그림 3-13〉 문화관련 우선 필요사업	78
〈그림 3-14〉 건강관련 우선 필요사업	79
〈그림 3-15〉 교육관련 우선 필요사업	79
〈그림 4-1〉 청년지원 전략 및 지원사업	88
〈그림 4-2〉 1순위 청년지원 정책 응답률(%)	89
〈그림 4-3〉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정책	97
〈그림 4-4〉 나이에 따른 평균 실손의료보험료 견적 비교	100
〈그림 4-5〉 취업 전후 지원정책 현황	105
〈그림 4-6〉 보육시설 공급과 출산율 영향	108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전국적인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함께 전북 청년의 타 지역으로 유출이 나타나고 있음
 - 전북의 청년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11,000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됨
 - 최근 3년간 전북 청년의 순이동은 8,946명(2017), 12,922명(2018), 12,708명(2019)으로 조사됨
- 지방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불리하고, 중소기업 중심인 전북의 경제구조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아 지역 내 정착에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음
 - 청년의 타 시도 이동 사유는 직업(43.1%), 가족(25.9%), 주택(13.6%), 교육(8.4%), 기타(9%) 순으로 전출자 수가 많음
-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을 포함한 청년은 적절한 주거공간과 주거비 마련에서만 아니라 결혼을 통한 출산과 육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청년 등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른 주택수요와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청년계층의 주거마련에 어려움 겪고 있음
- 일자리와 주택 등의 청년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또는 가족의 성장과정에서 정체 및 지체가 발생함
 - 청년의 성장과 발전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의 삶과 관련된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함
- 이에, 청년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추진 중임

- 청년의 권리와 책임과 함께 청년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20.2)하여 시행('20.8) 중에 있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청년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지원하기위하여 신기술분야 산업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 양성, 혁신창업 펀드 추가 조성, 지역청년 맞춤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인재양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의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됨
- 주거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의 확대로 자산형성을 돕고, 전·월세자금 대출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의 사업으로 주거공간 마련에 지원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전북 청년의 주거와 생활 관련 실태와 의식 분석
 - 주요한 생애전환기 단계에 있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적 상태에 대한 파악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수요에 대한 파악
- 전북 실정에 맞는 청년 주거·생활안정 지원 정책 발굴
 - 청년이 전북에서 안정적인 거주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 외 분야에 대한 정책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 전북 청년이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전북 청년 주거 및 생활 실태 분석

-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생활안정의 범위 설정
 - 정책적 대상인 청년에 대한 연령에 대한 범위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상이함
- 승인통계 및 행정자료 분석을 통한 청년경제활동 및 생활 실태 분석
 - 통계청의 인구가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청년패널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한 실태 분석
 -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과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의식 등
- 전북 청년 실태 분석
 - 통계자료를 통한 전국과 비교한 전북 청년의 실태
 - 전북 청년 대표 단체에 대한 의견청위를 통한 전북 청년 의식 조사
 - 청년가구의 가구규모, 거주 주택형태, 거주형태와 주거비, 정책 수요 등

(2) 중앙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 분석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생활안정 정책 검토
 - 정부정책의 지원 분야별 정책 현황
- 청년 정책의 사업분야별 사업규모 현황
 - 정책사업의 청년 연령별, 사업의 특정 대상별, 지원방식별 현황

(3) 전북 청년 주거 및 생활부문 지원 방향 설정 및 지원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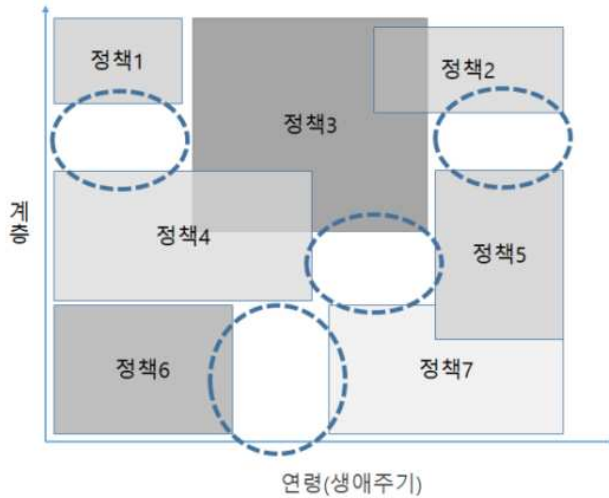
- 청년 실태 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
 - 청년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향 설정
- 지원 부문 및 전략 도출
 - 정책적 지원 수요 부문 설정과 지원방향별 전략
- 전북 청년 지원정책 추진 방안 마련 및 지원사업 발굴
 - 전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방안과 지원사업 발굴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청년 이슈 연구 문헌
-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관련 정책지원 보고서
-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 동향(기존 정책의 소외 부분 도출)

〈그림 1-1〉 특정분야의 기존 정책 분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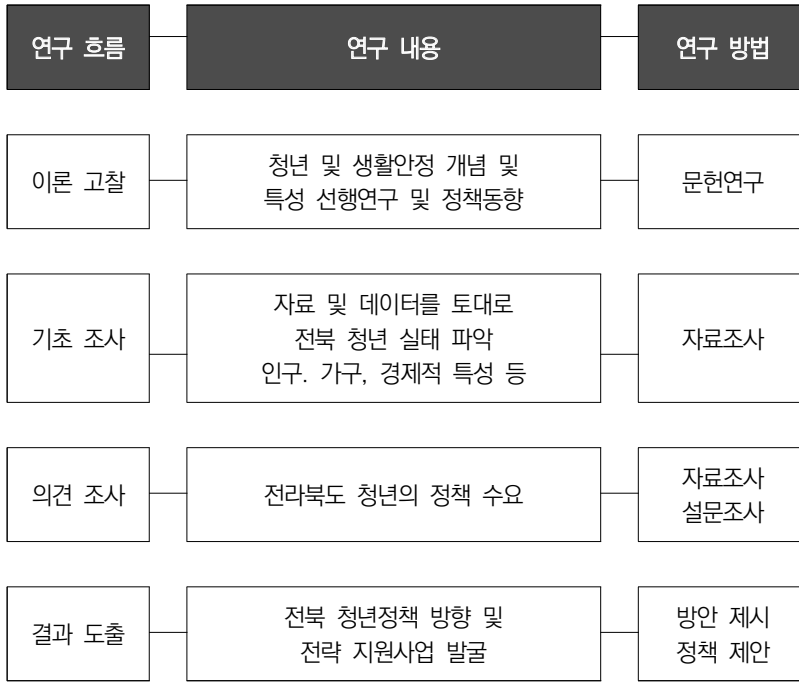
○ 자료조사

- 청년 가구 및 주거실태 통계 데이터 조사
- 청년의 경제 및 생활 활동 실태 데이터

○ 전문가 자문방법

- 청년 관련 주거 및 경제·생활에 관한 연구 전문가 자문
- 청년의 주거, 생활안정 관련 지원 기관의 실무 전문가 자문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2

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Jeonbuk Institute

-
1. 이론고찰
 2. 정책 동향
 3. 청년정책 실태
 4. 선행연구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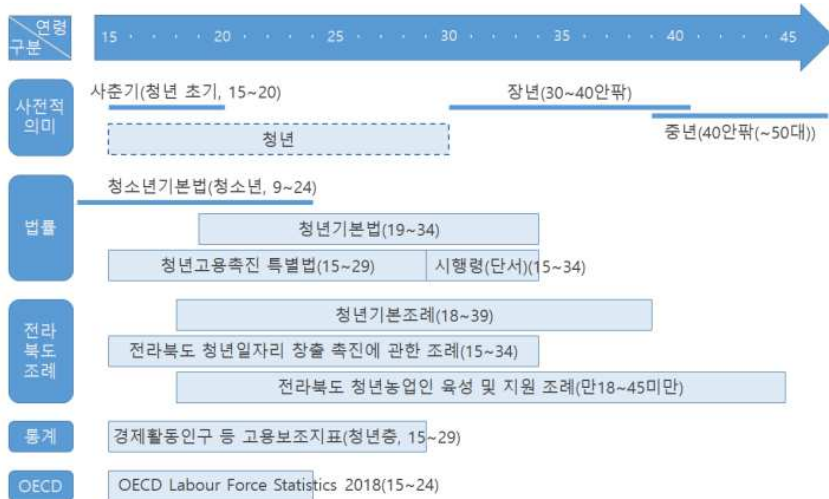
1. 청년 개념 및 범위

- 청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¹⁾”임
 -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인 소년의 시기를 지나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 (중략) 청년 초기로 보통 15~20세”를 이르는 사춘기 막바지에 이르는 시기부터 청년으로 정의되고 있음
 - 장년은 “사람의 일생 중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로, 중년은 “마흔 살 안팎의 나이, 때로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로 정의됨
 - 사전적으로는 청년은 사춘기인 15세 이상부터 20대까지의 나이의 사람임
-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그 법 시행령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음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로 정의 하고 있어 가장 폭넓게 청년을 인정하고 있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라북도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함

〈그림 2-1〉 청년의 다양한 연령 범위



〈그림 2-2〉 광역지자체별 청년의 연령 범위



2. 청년 특성

- 청년은 인생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기를 거치는 시기임
 - 청년은 성인이행기에 위치하면서 교육, 취업, 독립, 자가 취득, 결혼, 출산의 과정을 수행하게 됨(김지경 외 2019, 32)
 - 제도권 내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틀에 짜인 학교생활이 대부분인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 입학 후 본인 의지에 따라 학업과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됨
 - 주로 대학생이 되면서 법적인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기존의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게 됨
 -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업무와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됨
 - 또한, 결혼을 통해 가구를 구성하면서 정책적·행정적 대상이 되는 기초적인 사회조직을 새롭게 형성하게 됨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면서도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기임
 - 학생신분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시작단계인 사회초년생의 시기에는 경제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및 생활 분야에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함
 - 대학졸업 후 다음 단계의 생애전환기를 원만히 극복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사회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되는 시기임
 - 결혼과 출산에 따라 청년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에서 요구되어지는 주거, 출산, 양육, 여가 및 문화부문에서의 수요가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면서 다양하고 활발한 경제활동 주체가 됨
-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청년은 실업과 니트(NEET)가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음(김지경 외 2019, 35~38)
-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이 늦어지고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면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량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음(김지경 외 2019, 47~51)

3. 청년정책 대상

1) 청년정책 분류

- 청년정책의 분야에 대해서 청년기본법(2020.2.4 제정, 2020.8.5. 시행)의 제8조 제2항 제3호에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을 청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서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련해야하는 대책으로서 고용 및 일자리,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 금융생활, 문화, 국제협력에 대한 향상과 지원을 명시함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의 사업분야 기준 청년정책 분류체계(안)에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권리, 생활의 5개로 대분류되었고 11개로 소분류됨

〈표 2-1〉 청년정책 분류체계(안)

청년정책 분류체계(안)			청년기본법 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고	
1. 일자리	1-1 취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1-2 창업 지원		청년 창업지원
2. 교육	2-1 교육, 연수, 실습	기숙사 제외	청년 능력개발 지원
	2-2 교육비		
3. 주거	3-1 주택 공급	기숙사 제외	청년 주거지원
	3-2 주거비		
4. 참여· 권리	4-1 참여·활동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4-2 권리		청년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청년 권익증진
5. 생활	5-1 금융	-	청년 복지 증진
	5-2 소득자산		청년 금융생활 지원
	5-3 건강		청년 복지 증진

출처 : 김기현 외(2020), 24쪽, 재인용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제외한 주거와 생활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활분야에서의 정책대상은 위에서 살펴본 청년정책 분류체계(안)의 생활분야로 분류된 금융, 소득자산, 건강과 함께 문화, 결혼·출산·육아를 채택함
- 본 연구가 전북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북에 정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문화분야는 전북의 청년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채택함
 - 결혼·출산·육아 분야는 최근 이슈인 여성경제 참여와 저출산에 따른 전국적인 지방소멸 등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중요한 청년의 관심사항임

2) 주거안정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임차 지원, 주거환경 개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수준의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적절한 주거공간의 공급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의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주거공간 공급

- 공적부문에서 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공간의 제공
 - 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공간의 제공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공공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리모델링 및 수선 과정을 통한 양호한 주거공간으로 개선하여 청년에게 제공
 -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노후 고시원을 개량하여 제공
- 주택의 건설 및 임대와 관련한 세금의 감면을 통한 민간영역에서 청년 주거공간의 제공 유도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거공간 제공

■ 주거비용 지원

-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제공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을 위한 임차비용 대출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거주하는 청년의 안전을 위해 주택의 개보수비용의 지원
- 청년우대 청약통장 등 청년대상 저축에 추가적인 이자금리 지원

3) 생활안정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안전, 보건, 결혼 및 보육 등에서의 지원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의 일자리를 제외한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주거와 건강, 결혼 및 보육에 추가적으로 경제적 자산,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함

■ 결혼

-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청년의 결혼부담 경감 지원
 - 결혼식에 소요되는 장소와 공간의 무상 및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결혼절차에 대한 부담 경감
-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지원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물품, 약품, 휴식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신의 안정 속에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 육아

- 양육에 필요한 의료, 교육 등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육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의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아이돌봄, 공동육아 등 돌봄서비스 지원

■ 문화

- 창작활동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예술시장 진입을 위한 창작 및 공연전시 기회 제공

■ 건강

-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청년의 건강문제에 대응한 의료비 지원

제2절 정책 동향

1. 정부정책 동향

-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룸
 -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중장년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되었고, 청년은 대학졸업 후 취업에 성공했음에도 장기간 발령대기 상태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청년 취업과 실업에 대한 사회문제가 출발됨
 - 노무현 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이 더욱 높아졌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응을 위해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청년의 고용에 대한 대응이 시작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에서 진입은 여전히 어렵게 되어 고용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다각적인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모색됨

〈표 2-2〉 청년문제 프레임과 청년정책

시기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04
청년 프레임	청년이슈 대동기	청년문제 프레임 형성기	청년문제 프레임 분화기	청년문제 프레임 전환기
	ICT와 세계화 청년 참여와 활동 청년문화 콘텐츠 글로벌 청년문화	청년 정치참여 청년우울 청년실업 경제양극화	생애주기별 문제 일자리 창출·질 개선 글로벌 경제위기 청년 창업활동	일자리 문제 정치참여 대학 창업지원 경제 개혁 저출산 고령화 청년복지정책
청년 정책	실업대책위원회 청년 신규실업자	청년실업대책특위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위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위 청년 고용촉진
	정부 지원 인턴제 청년 점포임차지원	청소년직장체험 해외취업지원 기능사양성 훈련 고용정보망운영 청년고용촉진장려금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연수 바이오전문인력양성 신규직업자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버스(취업상담) 중소기업직업체험 내일채움공제 대학중심취업설명회 청년창업 2030정책참여단 해외취업정보제공

* 출처 : 김지경·변금선(2019), 62쪽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청년고용 관련 종합대책을 매년 마련하였으나, 대책의 중복성 및 관련 사업의 지속성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이윤주 외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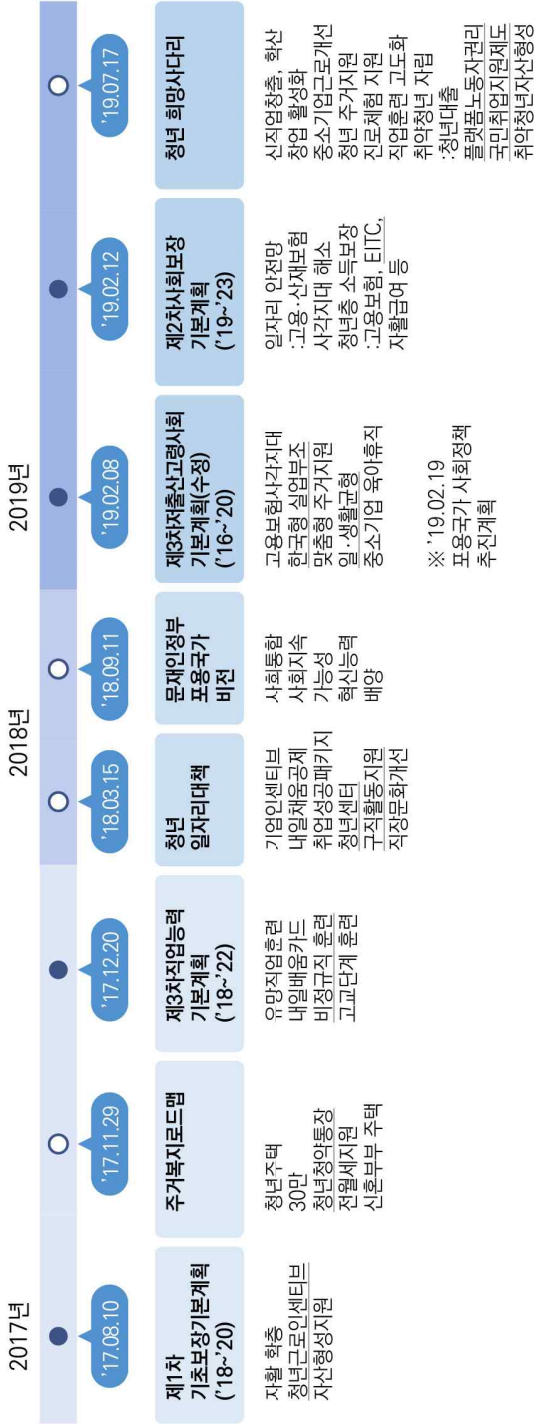
〈표 2-3〉 청년 대책 현황

연번	대책 명(일자)	분 야
1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 9. 22.)	6개 분야: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2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5. 1. 28.)	7개 분야: 진로·직업지도 강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서비스, 대학 취업지원기능 강화, 직업 및 고용정보 생산·보급 확대, 청년실업대책 성과 제고
3	청년실업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 (2007. 4. 27.)	14개 분야: 진로·직업지도 강화,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교육·훈련체계 혁신, 군복무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등
4	청년고용 촉진대책 (2008. 8. 29.)	3개 분야: 청년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고용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5	청년고용 추가대책 (2009. 3. 19.)	4개 분야: 교육훈련창업지원, 청년인턴, 단기일자리, 취약청년지원
6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2010. 10. 14.)	2개 분야: 청년일자리 7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7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2011. 5. 19.)	4개 분야: 일터가 곧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겠습니다, 지방대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청년 벤처창업과 벤처공동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8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3. 12. 18.)	3개 분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일자리를 만들고 보상시스템을 바꾸자, 청년의 창업열기 되살리기
9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 4. 14.)	3개 분야: 학교교육·직업훈련 내실화-자격 불일치 해소, 구직·취업-先취업·後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경력단절 방지
10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 (2015. 7. 27.)	3개 분야: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 출처 : 이윤주 외3(2017), 34~35쪽 재인용

- 기존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용적 국가실현을 위해 고용 외에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됨
 -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분야별 기본계획에 정책대상으로 청년이 포함되면서, 취약청년의 소득보장(빈곤가구 청년 근로인센티브 제고), 주거복지(청년주택 공급, 청년 청약통장), 직업훈련(비정규직, 고졸자 직업훈련 확충) 분야의 정책이 추진됨(김지경·변금선, 2019)
 - 기초보장기본계획(2017)과 사회보장기본계획(2019)에서 청년의 자활과 자산형성, 일자리안정망 및 소득보장 등 고용 외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 주거안정 정책 마련
 - 청년 일자리대책(2018)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기본계획(2017)을 통해 청년의 취업 지원과 직업능력 향상,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정책을 제시함
 - 청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위해 혁신능력을 배양시키고, 창업 활성화, 근로개선, 진로체험, 취약청년 자립 등 포괄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
- 국가의 비전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제시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2018)에서는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청년이 사회정책의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김지경·변금선, 2019)
- 미래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따른 전략을 설정함
 - 기회권한 배분, 소득불평등 완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구직활동지원, 일하는 청년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안전보장 생명존중을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청년주택 공급, 청년 활동공간 제공, 건강검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창의성 다양성 제고, 사람중심 일터 혁신, 고용안전망 구축을 통해 혁신능력의 배양과 구현을 위해 문체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비숙련 청년 산업안전 보장,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함

〈그림 2-3〉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 현황



출처 : 김지경·변금선, 2019, 65쪽

〈표 2-4〉 문재인정부 주요 청년정책 현황

비전 및 전략		청년 정책
사회통합	기회균한 배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소득불평등 완화	취업알선·창업(대학일자리센터, 창업사관학교, 청년취업아카데미), 구직활동지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역균형 발전	청년정책 거버넌스(소통·의견수렴기구, 정책·수립심의기구)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저출산 고령사회	주거정책(공공임대주택,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지원, 공공 기숙사)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활동 공간, 서비스 지원
	안전보장 생명존중	청년 건강검진(청년대상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온라인 자가 검진)
혁신능력 배양구현	창의성 다양성	다양한 활동 지원(문체부 지역사회 활동지원, 행자부 지역기반 일자리 지원)
	사람중심 일터혁신	직장내 갑질 규제, 비숙련 청년 산업안전 보장
	고용안전망 구축	1인영세사업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완화,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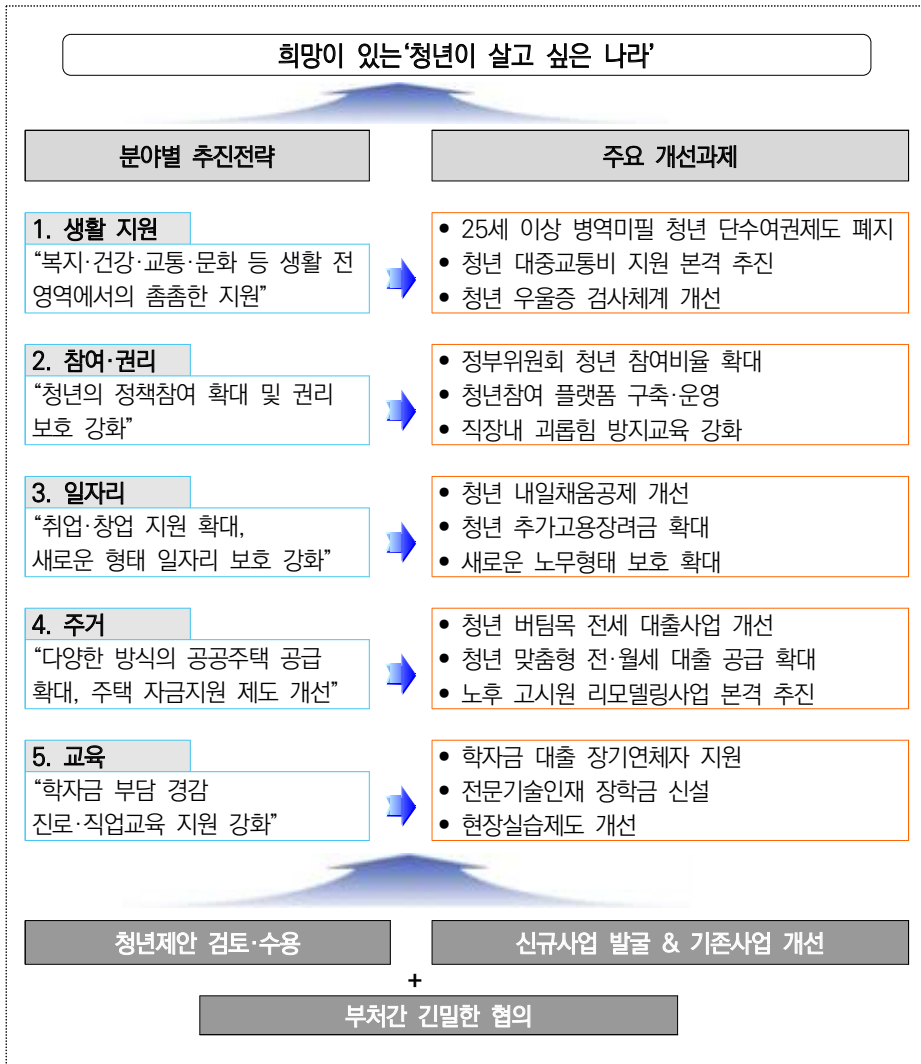
* 출처 : 김지경·변금선(2019), 73쪽

- 청년정책의 단순한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범위 확대²⁾
 - 정부에서는 2020.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실업 대책 위주의 낮은 체감도 정책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한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 청년정책의 범위를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생활·교육 등 전반적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적으로 확대
 - 청년정책 추진 근거로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론타워로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에 들어감

2) 관계부처 합동(2020) 참고

-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
- 청년들과 온·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통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청년 체감형 대책 수립에 집중

〈그림 2-4〉 ‘청년의 삶 개선방안’ 추진방향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0)

2. 정부정책

1) 중앙정부³⁾

(1) 청년정책 현황

- 중앙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여전히 취업지원에 집중됨
 - 정부 유형별 청년정책을 보면, 취업지원 정책이 135개로서 가장 많고, 취업지원과 창업 정책을 합하면 전체의 약 66%를 차지함
 - 세부구분 유형으로 보면, 55개로 가장 많이 진되고 있는 정책인 교육훈련·체험·인턴 뿐만 아니라 40개의 전문분야 취업지원, 27개의 해외진출 정책 역시 취업지원 유형임
- 청년 지원정책이 청년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확대되었으나 주거와 생활안정 관련 정책은 매우 부족함
 - 생활·복지 유형의 정책은 8개로서 전체의 3%에 그침
 - 주거·금융 유형에는 1개의 정책만이 시행되고 있어, 청년의 경제력을 감당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임(주거지원 유형에 주거금융과 관련 있는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어 재분류 필요함)

〈표 2-5〉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

구분		수	합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55	135
	전문분야 취업지원	40	
	중소기업 취업지원	13	
	해외진출	27	
창업	R&D 지원	11	28
	경영 지원	10	
	자본금 지원	7	
생활·복지	건강	3	8
	문화	5	
주거·금융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14	44
	주거 지원	14	
	주거·금융	1	
	학자금 지원	15	
미정		32	32

주 : 유형의 구분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구분을 따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이메일 자료 제공, 2020.5.26)

3) 본 보고서의 정책현황은 별도의 출처가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의 자료를 대상으로 함

(2) 청년정책 추진 현황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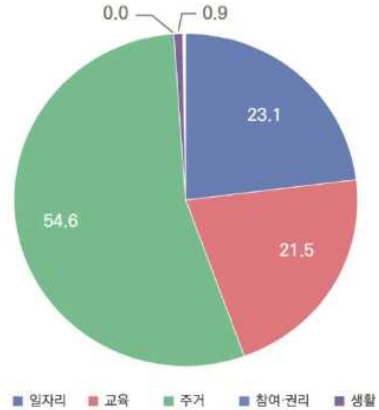
- 청년정책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사업수에서는 일자리정책이 가장 많고 사업예산에서는 주거정책이 가장 많음

〈그림 2-5〉 사업 영역별 사업 수 비율(%)



출처 : 김기현 외(2020),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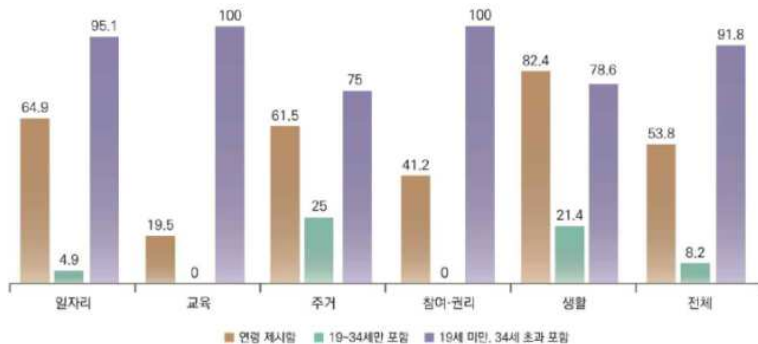
〈그림 2-6〉 사업 영역별 사업 예산 비율(%)



출처 : 김기현 외(2020), 26쪽

- 정부의 청년정책은 정책대상을 청년의 연령으로 선정하는데, 가장 많이 대상연령을 제시한 정책은 생활분야이고,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19세 미만과 24세를 초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림 2-7〉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 연령에 따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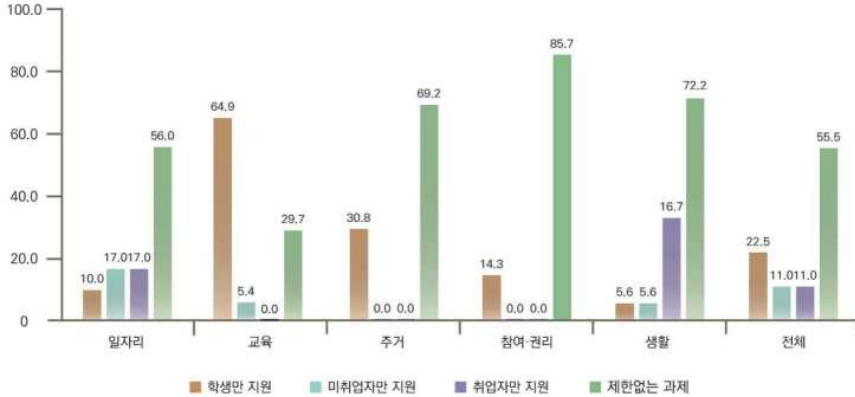


출처 : 김기현 외(2020), 27쪽

4) 김기현 외(2020) 참조

- 청년의 취업상태에 따른 정책 현황을 보면 교육분야 정책을 제외한 모든 분야 정책은 과반 이상이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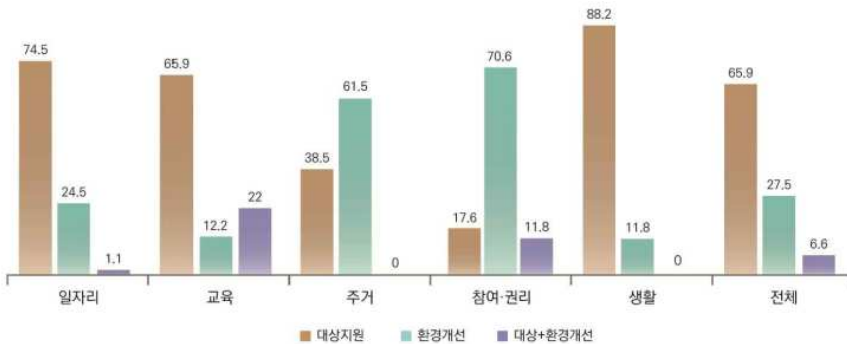
〈그림 2-8〉 청년정책 사업의 특정 대상에 따른 현황



출처 : 김기현 외(2020), 28쪽

- 청년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7.5%는 대상을 둘러싼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정책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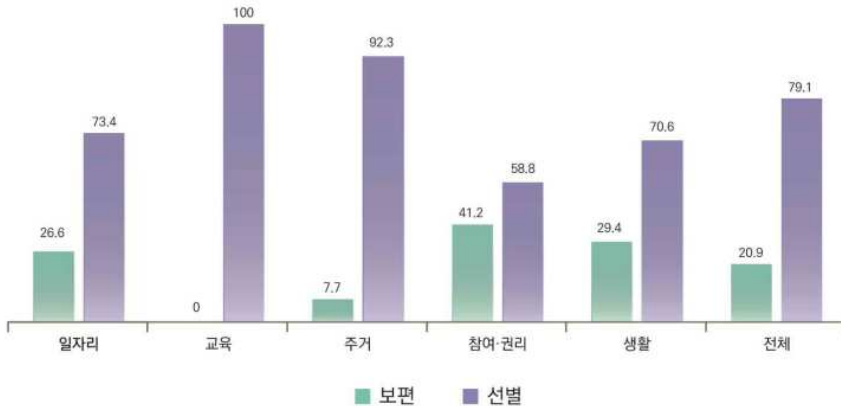
〈그림 2-9〉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에 따른 현황



출처 : 김기현 외(2020), 29쪽

- 정책대상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이 79.1%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청년정책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별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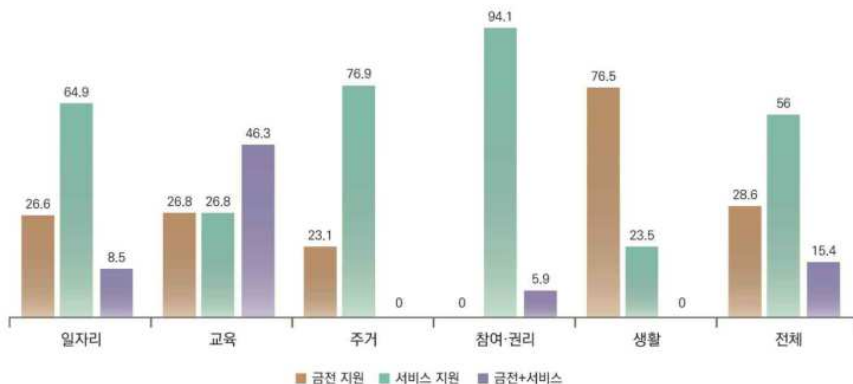
〈그림 2-10〉 청년정책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른 현황



출처 : 김기현 외(2020), 29쪽

- 정부의 청년정책은 금전적인 직접지원보다는 서비스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이 과반을 차지하고, 금전적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도 15.4%에 해당함

〈그림 2-11〉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내용에 따른 현황



출처 : 김기현 외(2020), 30쪽

2) 전라북도⁵⁾

(1) 일자리·고용 분야

■ 취업·고용

- 취업지원 체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다양화로 폭넓은 기회 제공과 일하는 청년 지원으로 기업과 상생환경 조성
 - 전북청년내일채움공제(47억 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28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53억 원) 등 44개 사업

■ 창업지원

- 청년의 창업교육, 참신하고 독특한 창업아이디어 공모 및 창업 육성 생태계 조성 확대로 새로운 기술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5억 원), 초기 창업패키지지원(101억 원) 등 13개 사업

(2) 문화·복지 분야

■ 문화·여가

- 청년 문화예술가에게 다양한 기획, 전시기회의 장 마련 및 창작·기획 비용 지원으로 청년문화예술 발전
 - 청년문화의 날 운영(0.2억 원), 청년축제(0.6억 원) 등 13개 사업

■ 복지·삶의 질

- 취업초기 사회활동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
 -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9억 원), 청년 건강검진지원 등 14개 사업

5) 전북도청 내부자료 참고

■ 거버넌스

○ 다양한 활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지원과 도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소통강화 및 정책수용성 제고

- 청년정책포럼 운영(0.3억 원), 청년소통 프로그램지원(0.2억 원) 등 5개 사업

〈표 2-6〉 전라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분야	연번	사업명	사업비
취업 및 고용	1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2,300
	2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1,314
	3	농촌과소화마을대응인력육성	1,200
	4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386
	5	도시청년 농촌마을 짬매창업	182
	6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400
	7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122
	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754
	9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724
	10	취업박람회 개최	180
	11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12,459
	12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구축	80
	13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2,200
	14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1,482
	15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4,858
	1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9,540
	17	청년 해외취업지원	709
	18	공공기관 - 대학교 잡멘토링	70
	19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인턴	850
	20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3,460
	21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4,400
	22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603
	23	취업보장형 고교, 전문대 통합 교육 육성사업	485
	24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1,250
	25	ICT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100
	26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236
	27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7,635
	28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	426
	29	공학교육혁신 선도센터 지원	324
	3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2,532
	31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510
	32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2,596
	33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710
	34	연료전자시스템전주기R&D고급트랙	633

분야	연번	사업명	사업비
창업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45,000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115
	3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100
	4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300
	5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108
	6	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 확산사업	1,716
	7	창업 식품기업 지원	200
	8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지원	195
	9	내수면양식청년창업붙임조성	480
	10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205
	11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310
	12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1,350
	13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1,800
	14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400
	15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3,286
	16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214
	17	전북 콘텐츠산업 육성센터 운영	1,980
	18	전라북도 관광벤처기업 육성	100
	19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10,260
	20	지식서비스기반 창업교육 지원	300
	21	전북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지원 사업	1,000
	22	스타트업 청년인재 매칭 지원	210
	23	전북 우수기업 청년창업 연계지원	564
	24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	489
	25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148
	26	창업기업 e-커머스 판로지원	200
	27	글로벌 벤처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1,000
	28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500
	29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3,320
	30	찾아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40
	31	전라북도 청년社長프로젝트	95
	32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몰)	1,600
	33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	1,664
문화 여가	1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140
	2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40
	3	전북 상설공연 운영지원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106
	4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098
	5	드림공연예술단 육성 지원	370
	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개최	1,100
	7	산업단지,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2,000
	8	K-POP 페스티벌개최지원	90
	9	영화영상 활성화 지원사업	6,272

분야	연번	사업명	사업비
	10	K-POP 콘서트 개최(새만금방조제 개통기념)	1,000
	11	전북관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	1,406
	12	전북 마이스산업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192
	13	전북청년 2020	40
	14	전북청년 어울림한마당 컨퍼런스	60
복지 삶의 질	1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3,254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6
	3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756
	4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650
	5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504
	6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400
	7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	2,050
	8	도시와 농촌 청년 공동삼락 캠프 운영	50
	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822
	10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602
	11	청년저축계좌사업	529
	12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125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시군)	433
	1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07
	15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110
	16	아동 교육올타리 지원	30
	17	아이 낳기좋은 세상 운동본부(도,시군)	180
	18	다함께 돌봄 사업	898
	19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지원센터 지원	880
	20	분만의료 취약지역 지원	700
	21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985
	22	난임부부 지원 사업	1,252
	2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22
	2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657
	2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2
	26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지원사업	30
	27	산후 건강관리 지원	1,200
	28	청년 건강검진 지원	30
	29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687
	30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580
	31	청년주거 임대 지원	240
	32	전북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692
거버 년스	1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3,670
	2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150
	3	전라북도 청년허브센터 구축	450
	4	지역 청년 네트워크 공간 청년마루 조성	300
	5	청년정책포럼 운영	30
	6	청년정책 T/F 운영	비예산

자료 : 전북도청(2020)

제3절 청년정책 실태

1. 주거분야 정책

- 청년을 위한 주거분야의 정책사업은 주로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으로 구분됨
 - 주택공급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확충하거나 행복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지원주택 등을 청년맞춤형 공적임대주택으로서 건설하여 제공함
 -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도 추진됨
 - 청년이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전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음
-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므로 국토부에서 주로 관련 사업들은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교육부, 농식품부, 금융위원회에서도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2-7〉 청년정책사업 중 주거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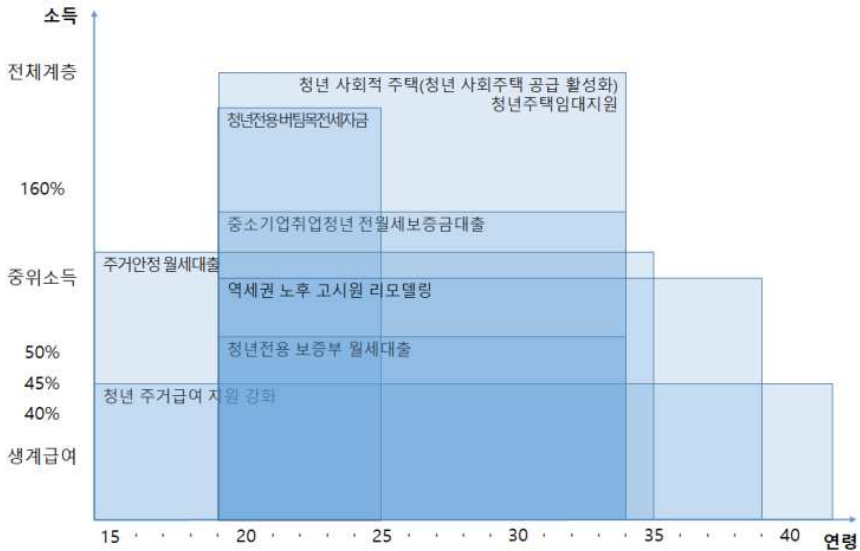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주택공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주택공급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식품부
주택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국토부
주택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국토부
주택공급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주택)	국토부
주택공급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주택공급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국토부
주택공급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국토부
주거비지원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국토부
주택공급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국토부
주거비지원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금융위
주택공급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행복청

출처 : 김기현 외(2020) 168쪽

-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거나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금융위에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함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한 주택공급 정책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희망타운 건설사업임
 - 행복주택의 정책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인데 기존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청년도 주택공급 정책의 새로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의미함
 - 특히,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육아를 위해 어린이집과 육아시설 등을 갖춘 맞춤형 주택정책사업임
- 직접적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외에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서 전월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청년이라는 대상을 추가하거나 일정한 기준의 청년을 추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임(김기현 외, 2020)
 -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사업 유형별로 상이하고, 우대금리 요건과 대상주택, 보증금 수준이 각기 달라 수요자 접근성이 높지 않은 편”임(김기현 외, 2020)
- 청년과 관련된 정부 및 전북의 지원정책을 정책대상의 연령과 소득의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19~34세의 중위소득 이하에 집중되어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많아지면서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은 특징도 보여줌
- 30대 후반의 청년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계층이 20대와 30대 초반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지만 중위소득 이상이거나 3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2〉 연령 및 소득별 청년주거 지원정책



○ 청년 연령대 분화와 주거영역의 직접서비스 확대가 필요

- 청년 대상의 주거정책이 연령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하고 대상자 소득기준도 다르므로 지원사업의 연령대 분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김기현 외, 2020)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주거불안정이 지속되고 청년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므로 주거수당이나 주거 관련 교육 등의 주거영역의 직접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김기현 외, 2020)

2. 자산분야 정책

- 청년의 자산관련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정책들은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신용 관련 금융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지원과 보험료 지원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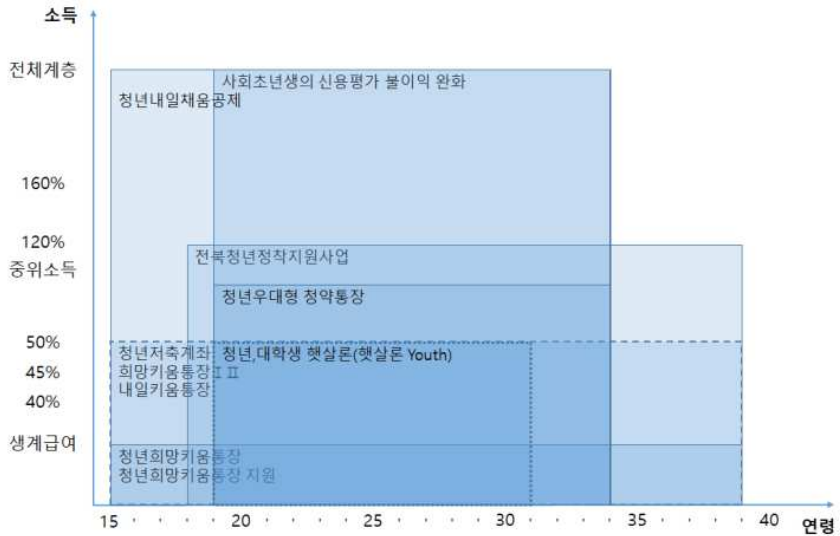
〈표 2-8〉 청년정책사업 중 자산 관련 사업 현황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소득자산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국방부 외
소득자산	군인연금 미수혜 전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국방부
소득자산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복지부
소득자산	청년저축계좌(신설)	복지부
소득자산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소득자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여가부
소득자산	온라인 쇼핑몰 카드 수수료를 인하	금융위
소득자산	청년형 ISA 운영	금융위
소득자산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병무청
금융	청년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금융	청년·대학생 금융현장소통	금융위
금융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금융위
금융	청년 금융교육 지원	금융위
금융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청년·대학생 햇살론)	금융위
금융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금융위

출처 : 김기현 외(2020) 235~236쪽 편집

-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복지부와 금융위 소관의 정책들이 다수를 이룸
 - 복지부에서는 청년의 자산 마련을 위해 저축계좌와 근로인센티브를 통해 저축액의 증가를 지원하고 금융위에서는 청년창업자나 청년의 금융 및 신용과 관련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는 청년병사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 주거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
- 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의 소득과 연령에 따른 분포 역시 주거정책과 유사하게 19~34세의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주요한 정책대상임
 - 34세 이상과 중위소득 이상의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누락되어 있음

〈그림 2-13〉 연령 및 소득별 청년자산 지원정책



-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전체 청년층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정책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음
 - 청년형 ISA 운영,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24세 이하), 청년 금융교육 지원, 일자리 창출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이 있고, 군복무 청년을 위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농촌지역 대상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입학금 부담 완화 등이 있음

3. 결혼·육아 정책

-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관련한 청년 정책은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육아와 관련한 정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결혼을 위한 만남 주선, 결혼식 지원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고,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도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청년 마더박스 지급 정책, 출산장려금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정책이 지원되고 있음
- 전북 청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결혼 및 출산·육아 지원정책은 대부분 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되고 있음
 -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취역지 임산부 이송지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원 사업 등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됨
 - 다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함
 - 또한, 농지소유 5ha 미만의 농어촌거주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4. 문화분야 정책

- 청년의 문화 관련 지원정책은 주로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공연전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예비 예술인의 첫 공연 지원을 통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함
 - 전북도에서는 전북청년 2020 사업을 통해 청년미술가 육성을 위하여 전시회 개최와 재료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연주회 및 발표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인들을 위하여 전북로케이션을 지원하는 영화영상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화분야의 청년지원 정책은 연령이나 소득계층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만 일부 지원사업은 대상 연령은 4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5. 건강분야 정책

- 청년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30대의 청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미취업상태인 청년들도 국가의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 취업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청년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원 정책임
- 전국의 청년건강정책으로 추진하는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의료급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건강지원 정책들은 연령이나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청년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정책적 효과는 낮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정책 수요 및 평가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실시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18.2%이고, 직접 사업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청년은 조사대상의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김기현 외, 2020)
 -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위의 조사결과, 사업을 알고 있는 청년은 응답 청년의 14.8%이고, 오직 3.4%만이 직접 수혜를 받은 것(김기현 외, 2020)으로 조사되어 정책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제4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고찰

-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청년문제 연구」에서는 청양군 청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18~39세의 회사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인식, 문화와 여가, 교통 및 주거, 소득과 부채, 청년정책의 영역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함
 - 청년정책의 영역에서 일자리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 행사 등 즐길거리를 갖춘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 문화역량 개발, 공공교통 확충 등의 지원을 제안하였고, 특히, 청년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 발신채널 구축, 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함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에 대한 실태분석의 핵심지표로 인구와 가족, 교육, 경제,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로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함
 - 삶의 대한 인식, 문화와 여가, 교통 및 주거, 소득과 부채 등의 분야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청년의 주거 형태는 50% 이상이 일반주택이고, 2015년 기준 청년가구의 41.0%가 1인가구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의 주요 거주 형태는 원룸이 35%로 가장 높고 아파트 33%, 다세대 빌라 23% 순으로 나타남.
 - 주거 마련 시기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0년~20년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고용, 교육정책 등에서 지원정책을 제안하였고,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안정 및 저가형 주택공급 확대, 공동주거(share house) 도입, 임대형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함
- 부산연구원의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부산시 청년 종합실태조사 항목으로 청년정책기반 개선 및 사회참여, 일자리, 진로계획, 주거생활, 소득/채무 등 금융, 삶의 질/건강, 문화/여가 등을 선정함
 - 청년정책 기반 개선 및 사회참여 분야, 일자리 분야, 진로계획 분야, 주거생활 분야, 소득/채무 등 금융 분야, 삶의 질/건강 분야, 문화/여가 분야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 청년에 맞는 주거 정보 제공 필요를 중요 요소로 선정함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기금 마련 및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공공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보제공 기준 마련, 부산형 청년임대주택 확대를 제안함

○ 「울산 청년층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복지 안정화 방안」에서는 울산 청년주거실태 조사 항목으로 청년층의 인구 및 가구현황, 인구이동 현황, 경제·사회활동 현황, 주거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함

- 인구와 가구 현황 및 이동 현황, 경제·사회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
- 실태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위주의 청년주거정책 탈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 대안적인 형태의 다양한 청년공공주택을 공급할 것, 울산광역시 차원의 협력적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표 2-9〉 청년 지원 관련 선행연구

저자	저서명	주요내용
박춘섭 (충남연구원)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청년문제 연구(2018)	문화역량 개발, 공공교통 확충, 청년의 목소리 발신채널 구축
김기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소)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2016)	창업 지원 및 최저임의 적정수준 확보, 등록금 완화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부동산 안전 및 공동 주거, 임대 주택 등 저가형 주택공급 확대
김기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2016)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신규졸업(예정)자 항목 조사
김종욱 (부산연구원)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2018)	청년정책 기반 개선 및 사회참여 분야 확대, 공정한 채용환경 마련, 근무환경 개선, 진로교육 강화, 창업비용 지원, 임대 하우스 확대, 주거정보 시스템 구축, 청년대출 지원, 생활권 중심의 청년 문화 활동 공간 조성 등
안양시	안양시 청년 종합실태조사 (2017)	다양한 통로의 취업정보 제공,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지원, 주거안정 지원, SNS를 활 용한 다양한 문화 정보 제공, 현 정부 및 안양시의 정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저자	저서명	주요내용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19)	거주기간, 주거와 교통, 전입이유, 주거여건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정주의사, 정주의사에 대한 이유, 청년 주거 관련 필요한 정책, 자가용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등에 대한 청년 대상 조사
박진경	울산 청년층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복지 안정화 방안 (2018)	공급위주의 청년주거정책 탈피, 맞춤형 정책 추진, 대안적인 형태의 다양한 청년공공주택 공급, 협력적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협력시스템 활성화, 민관협력적 주거복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2) 시사점

- 실태분석을 토대로 청년의 니즈에 대한 파악과 정책 제언 필요
 - 교육, 경제, 주거, 문화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니즈를 파악
 - 청년 니즈를 바탕으로 청년대상 정책방안 제시
 - 청년이 정책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수요를 수용하고 반영
- 전라북도에 필요한 청년정책 발굴 필요
 - 동 시대를 함께하는 청년의 수요는 비슷함
 - 그러나, 일자리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같이 전북이 상대적으로 가진 약점과 그에 따른 청년의 수요를 파악하여 전북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3

장

전라북도 청년 실태

-
1. 청년 현황
 2. 청년 의식
 3. 전북 청년 의식
 4. 전북 청년 실태와 과제

제3장 전라북도 청년 실태

제1절 청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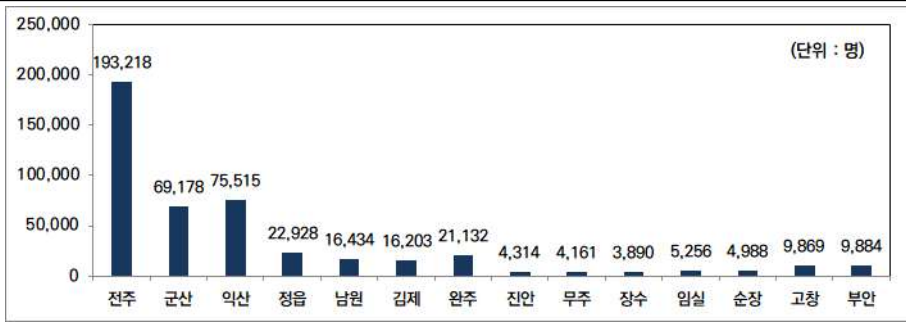
1. 청년 인구 및 가구

■ 청년 인구

- 전북의 청년 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음
 - 전국의 청년인구 비율은 29.1%에 비해 전북은 25.2%를 나타냄
 - 전주를 비롯한 시 지역에서는 20% 이상의 청년인구 비율을 보이는 반면, 군 지역에서는 완주를 제외하고 20%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도 내 시군간 차이가 발생함
- 청년인구가 적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적다는 것과 연결되고, 지역의 생산성 및 활력과의 연결될 수 있음

〈표 3-1〉 청년(18~39세) 인구(2019)

지역	전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인구	15,078,397	456,970	193,218	69,178	75,515	22,928	16,434	16,203
비율	29.1	25.2	29.5	25.7	26.5	20.9	20.2	19.4
지역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인구	21,132	4,314	4,161	3,890	5,256	4,988	9,869	9,884
비율	23.0	16.9	17.2	17.5	18.8	17.7	17.9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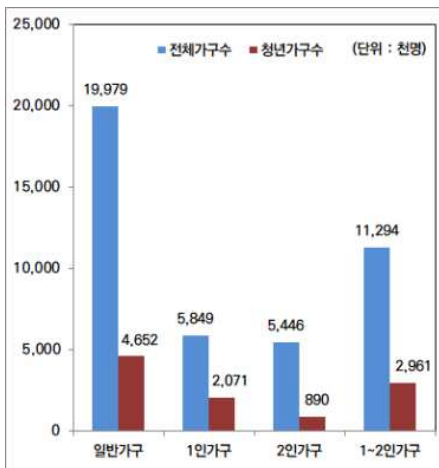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kr) >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 청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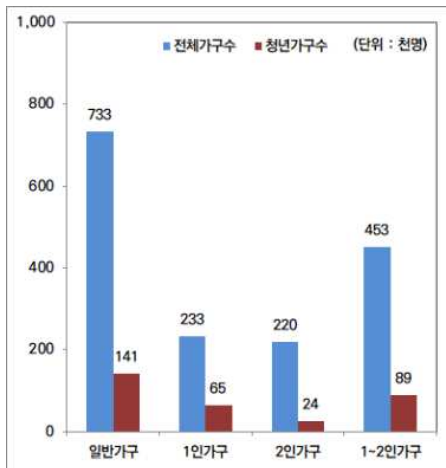
- 전북 전체 가구의 약 20%가 청년가구주 가구로서 전국 평균보다 적음
 - 전북에서 청년가구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19.2%에 해당
 - 전북 전체 1인가구 중 27.7%는 청년 1인가구이고, 2인 청년가구도 11.0%에 이름
- 청년가구의 경제적 여력으로 거주가 가능한 1~2인용 소형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는 수요가 예상됨

〈표 3-2〉 청년 가구 현황(2018)

구분		전국			
		일반가구	1인가구	2인가구	1~2인가구
전국	전체가구수	19,979,188	5,848,594	5,445,691	11,294,285
	청년가구수	4,652,321	2,070,798	889,840	2,960,638
	비율(%)	23.3	35.4	16.3	26.2
전북	전체가구수	732,980	232,587	220,032	452,619
	청년가구수	140,873	64,524	24,134	88,658
	비율(%)	19.2	27.7	11.0	19.6



전국 청년 가구



전북 청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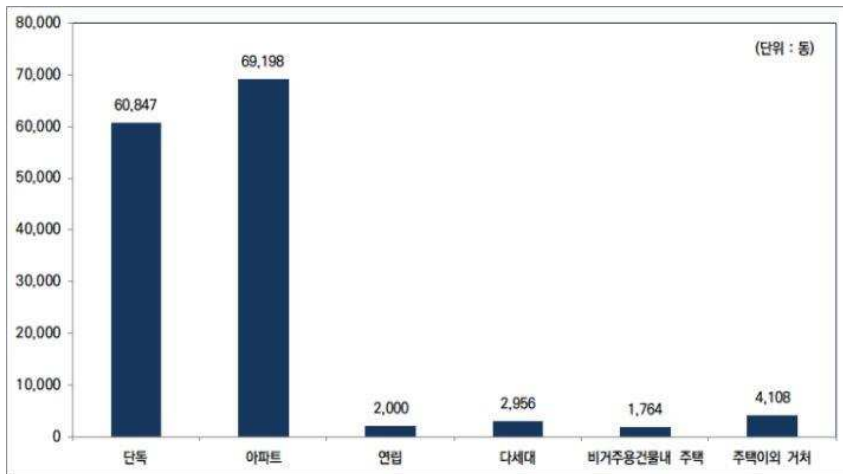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kr) >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별 가구

■ 청년 거주 주택형태

- 전국의 청년에 비해 전북의 청년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전북의 청년가구는 43.2%가 단독주택, 49.1%가 아파트, 1.4%가 연립주택, 2.1%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지만, 평균적인 전국의 청년은 30.7%만이 단독주택에 거주함
 - 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 단독주택 거주 청년가구는 주로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높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이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도 전북에 4천 여 가구에 달함

〈표 3-3〉 청년의 거주 주택형태(2018)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 거처
전국	수	1,426,301	2,156,699	76,284	498,989	81,758	412,290
	비율	30.7	46.4	1.6	10.7	1.8	8.9
전북	수	60,847	69,198	2,000	2,956	1,764	4,108
	비율	43.2	49.1	1.4	2.1	1.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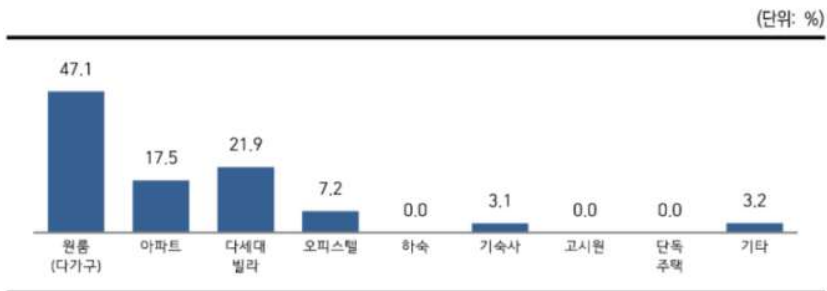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kr) >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 주거

- 전국의 청년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음
 - 청년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2000년 15.5%, 2010년 23.9%, 2018년 29.3%)
 - 청년1인가구는 주로 원룸(다가구주택)에 거주(47.1%)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2016년 35.2%, 2017년 37.1%, 2018년 19.4%, 2019년 47.1%)

〈그림 3-1〉 청년1인가구 거주형태



*출처 : 김형주 외2(2019), 229쪽

- 청년가구는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큼(김형주 외2 2019, 221)
 -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실주거비(2인 이상 월세가구의 월세액)는 2016년 107,674원으로서 전체가구 78,906원보다 약 3만원이 더 많음
 -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청년가구의 실주거비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1 대 1.36에 이르고 있음
 -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실거주비는 2007년 57,373원에서 2016년 107,674원으로 1.88배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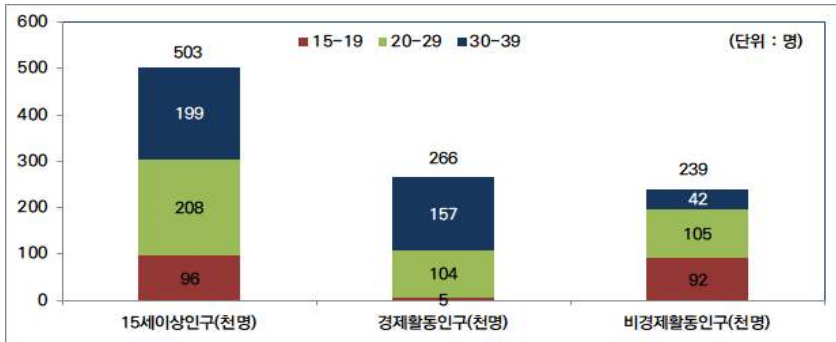
2. 청년 경제활동

■ 경제활동 인구

- 전북의 청년은 전국에 비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음 편임
 - 전국적인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61.5%인 반면, 전북은 52.9%로서 전국에 비해 8.6%p 낮음
 - 고용률 역시 전북(49.9%)은 전국(58.5%)에 비해 8.6%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의 인구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경제활동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 방안 필요

〈표 3-4〉 청년(15~39세) 경제활동 현황(2019.12)

구분	15세이상 인구(천명)	경제활동 인구(천명)	비경제활동 인구(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전국	16,245	9,985	6,261	61.5	58.5
전북	503	266	239	52.9	49.9
15-19	96	5	92	5.1	5.1
20-29	208	104	105	49.9	45.6
30-39	199	157	42	78.8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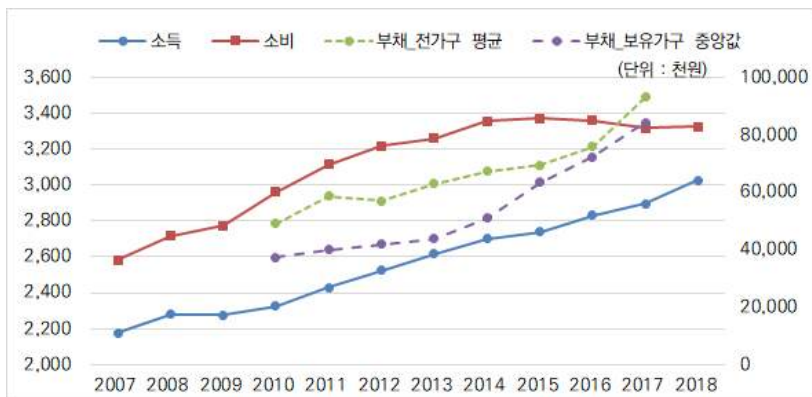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kr) >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연령별 취업자

■ 청년 소득과 소비

- 청년의 소득이 소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비의 정점이었던 2015년 까지 소득의 증가세가 소비의 증가세보다 낮음을 알 수 있음
- 청년의 소득은 2017년 2,178천 원에서 2018년 3,028천 원으로 850천 원이 증가하였고 소비는 동 기간에 743천 원이 증가하여 소득의 증가폭이 더 컸지만, 2015년까지를 보면 소비가 227천 원 더 많았음
- 부채가 있는 청년가구의 부채중양값이 2010년 37,400천 원에서 2017년 84,300천 원으로 증가하여 2배 이상이 늘어남

〈표 3-5〉 청년(15~39세) 경제활동 현황(2019.12)

구분	소득	소비	부채_전가구 평균	부채_보유가구 중양값
2007	2,178	2,584	-	-
2008	2,279	2,718	-	-
2009	2,277	2,776	-	-
2010	2,326	2,961	49,170	37,400
2011	2,428	3,115	58,770	40,000
2012	2,527	3,217	56,880	42,000
2013	2,617	3,262	62,910	43,820
2014	2,700	3,356	67,380	51,020
2015	2,740	3,373	69,540	63,500
2016	2,833	3,361	76,010	72,260
2017	2,896	3,316	93,130	84,300
2018	3,028	3,327	-	-



자료 : 김형주 외2(2019), 196~204쪽

3. 청년 결혼 및 출산

■ 청년 결혼

- 전라북도 청년의 결혼은 2015년 14,311명에서 2019년 10,668명으로 연평균 7.1%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임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청년이 결혼하는 연령층은 25-29세 청년이 3,591명으로 가장 많고 30-34세 청년이 3,475명 등 순으로 높음
- 청년가구 결혼정책은 25세~34세 대상인구를 중점으로 지원할 경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3-6〉 청년 결혼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전국	계	506,350	470,500	439,255	426,622	393,350	-6.1
	15 - 19세	4,310	4,048	3,310	3,078	2,950	-9.0
	20 - 24세	33,911	30,506	27,309	24,368	21,110	-11.2
	25 - 29세	172,019	157,285	147,368	141,894	128,514	-7.0
	30 - 34세	206,030	187,226	169,046	161,449	146,885	-8.1
	35 - 39세	63,801	64,476	65,034	66,910	64,310	0.2
전북	계	14,311	12,881	12,025	10,998	10,668	-7.1
	15 - 19세	141	158	110	87	75	-14.6
	20 - 24세	1,253	1,067	1,021	817	760	-11.7
	25 - 29세	5,060	4,413	4,209	3,655	3,591	-8.2
	30 - 34세	5,240	4,684	4,224	3,847	3,475	-9.8
	35 - 39세	1,790	1,705	1,640	1,655	1,761	-0.4

자료 : 통계청(kosis.kr) > 시도_초혼연령별_혼인

■ 청년 출산

- 전라북도의 연령별 출산율은 2015년 262.5명에서 2019년 184.7명으로 연평균 8.4%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임
- 2019년 기준 전라북도 청년이 출산하는 연령층은 30-34세 청년이 87.3명으로 가장 많고 25-29세 청년이 45.0명 등 순으로 높음

〈표 3-7〉 청년 연령별 출산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전국	계	242.0	228.0	203.4	187.6	174.8	-7.8
	15 - 19세	1.4	1.3	1.0	0.9	0.8	-13.1
	20 - 24세	12.5	11.5	9.6	8.2	7.1	-13.2
	25 - 29세	63.1	56.4	47.9	41.0	35.7	-13.3
	30 - 34세	116.7	110.1	97.7	91.4	86.2	-7.3
	35 - 39세	48.3	48.7	47.2	46.1	45.0	-1.8
전북	계	262.5	241.8	221.5	199.3	184.7	-8.4
	15 - 19세	1.9	1.5	1.3	1.1	1.1	-12.8
	20 - 24세	17.6	16.1	13.4	12.1	10.5	-12.1
	25 - 29세	78.0	66.8	61.4	49.7	45.0	-12.8
	30 - 34세	119.0	113.5	100.7	92.5	87.3	-7.5
	35 - 39세	46.0	43.9	44.7	43.9	40.8	-3.0



자료 : 통계청(kosis.kr) > 시도_초혼연령별_혼인

주 : 모의연령별 출산율로서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4. 청년 문화예술

■ 문화예술 활동 건수

- 전라북도의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1,706회로 9개 지자체 중에서 4순위로 많은 문화예술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청년인구가 비슷한 충남, 충북, 전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3-8〉 시도별 문화 예술 활동 (2018)

구분	시각예술	공연예술						총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합계	15,192	1,735	11,333	7,608	1,270	2,773	24,719	39,911
서울	6,312	751	4,101	1,777	479	673	7,781	14,093
부산	942	68	981	539	115	167	1,870	2,812
대구	850	72	671	435	72	122	1,372	2,222
인천	620	36	414	330	46	82	908	1,528
광주	587	62	458	242	41	134	937	1,524
대전	407	25	460	274	33	85	877	1,284
울산	256	17	245	149	18	126	555	811
세종	33	11	22	43	5	33	114	147
경기	1,700	122	1,161	1,190	119	347	2,939	4,639
강원	620	107	471	411	69	122	1,180	1,800
충북	291	35	187	222	13	134	591	882
충남	300	53	268	392	35	66	814	1,114
전북	604	147	386	325	70	174	1,102	1,706
전남	409	64	256	328	34	183	865	1,274
경북	403	47	325	281	38	165	856	1,259
경남	562	94	620	496	55	121	1,386	1,948
제주	296	24	307	174	28	39	572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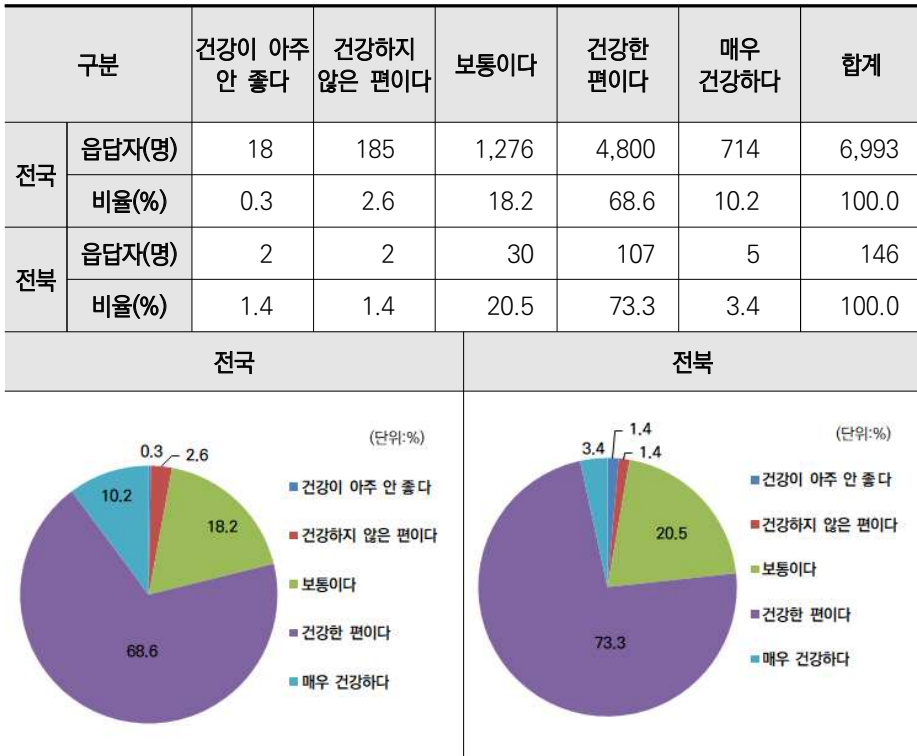
자료 : 문화예술위원회(2020), 2019 문예연감

5. 청년 건강

■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2019)에서 전라북도 청년의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한 편이다’가 73.3%, ‘보통이다’가 20.5% 등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북은 ‘건강한 편이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매우 건강하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이 아주 안 좋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 > 청년패널조사(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6. 청년 이동현황

■ 시도간 전입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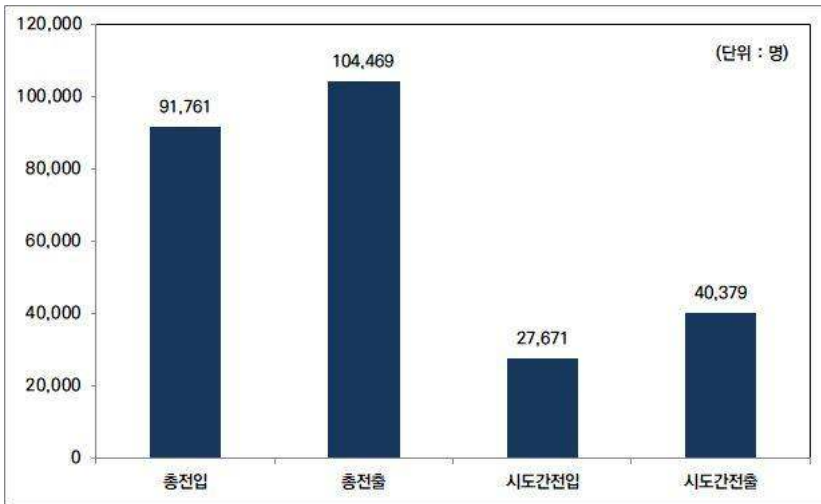
○ 전북의 청년의 전출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청년의 이동이 많은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타 시도에서 전입은 전체의 47.4%이지만 타 시도로의 전출은 56.7%로서 타 시도로의 전출이 9.3%p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전북의 타 시도로의 전출을 줄이고, 전북으로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임

〈표 3-10〉 청년 이동자수(2019)

구분		총전입	총전출	시도간전입	시도간전출
전북	이동자수(명)	91,761	104,469	27,671	40,379
	전체 이동자수 대비 청년 이동자수 비율(%)	40.1	43.3	47.4	56.7



자료 : 통계청(kosis.kr) > 시도/각세별 이동자수

■ 전입지별 순 이동자수

○ 전북 청년의 수도권으로 이동은 순이동수를 통해 전북 청년의 유출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북 청년의 전입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로 전입한 전북 청년에서 전북으로 전입한 서울 청년의 수를 뺀 순이동자수가 4,475명에 달함
- 경기의 경우에도, 순이동자수인 3,291명의 더 많은 전북 청년이 경기도로 이동한 것임
- 전국적으로 전북 청년인구 11,819명이 전북 밖으로 순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3-11〉 전북 청년 연령 및 전입지별 순이동자수 현황(2019)

구분	계	0~19	20~39	40~64	65~
전국	12,748	1,427	11,819	-445	-53
서울	4,209	409	4,475	-454	-221
부산	-86	17	41	-118	-26
대구	-32	30	-16	-45	-1
인천	697	100	562	0	35
광주	997	200	731	58	8
대전	1,031	79	936	-5	21
울산	108	36	127	-65	10
세종	646	154	285	179	28
경기	3,626	385	3,291	-166	116
강원	258	42	146	54	16
충북	520	86	314	101	19
충남	687	12	568	101	6
전남	169	-62	190	99	-58
경북	19	6	110	-95	-2
경남	-108	-63	0	-47	2
제주	7	-4	59	-42	-6

주 : 순이동자수는 전입자수에서 전출자수를 뺀 것으로서 각 지역을 전입지인 입장에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통계청(kosis.kr) > 전출지/전입지(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제2절 청년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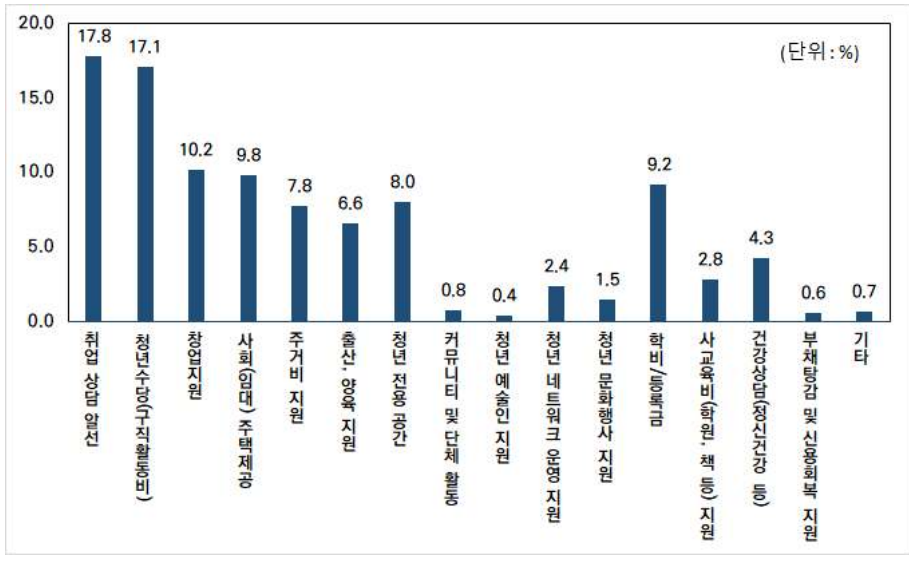
1. 주거분야

■ 청년 지원 정책

- 2019년 남원시의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은 본 연구대상 분야가 아닌 취·창업에 제외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 주거관련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에서 '취업 상담 알선'을 17.8%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청년 수당(구직활동비) 지원' 17.1%, '창업지원' 10.2% 순 등으로 나타남

〈표 3-12〉 1순위 청년지원 정책 응답률(%)

취업 상담 알선	청년수당(구직활동비)	창업지원	사회(임대) 주택제공	주거비 지원	출산, 양육 지원	청년 전용 공간	커뮤니티 및 단체 활동
17.8	17.1	10.2	9.8	7.8	6.6	8.0	0.8
청년 예술인 지원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	문화행사 지원	학비/등록금	사교육비 지원	건강상담(정신건강 등)	부채탕감 및 신용회복 지원	기타
0.4	2.4	1.5	9.2	2.8	4.3	0.6	0.7



자료 : 통계청(KOSIS)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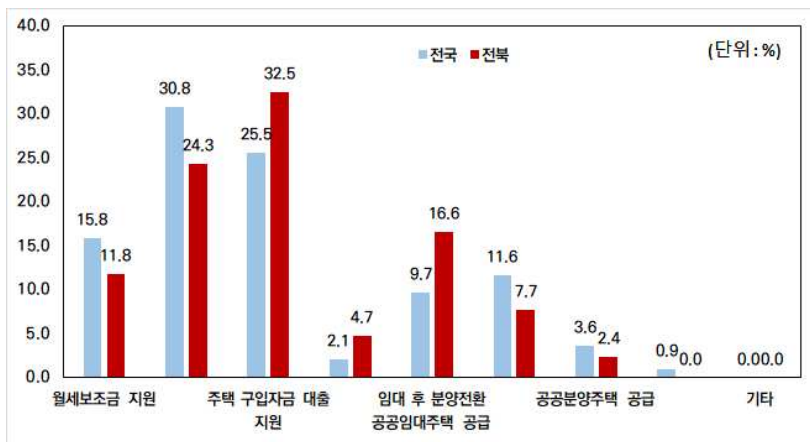
■ 주거지원 프로그램

○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청년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32.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4.3%로 중요하게 생각함

- 전국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순으로 나타남

〈표 3-13〉 임차 가구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구분	전국	전북
월세보조금 지원	15.8	11.8
전세자금 대출 지원	30.8	24.3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25.5	32.5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및 자금대출 지원	2.1	4.7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9.7	16.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7.7
공공분양주택 공급	3.6	2.4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등	0.9	0.0
기타	0.0	0.0



자료 : 통계청 주거실태조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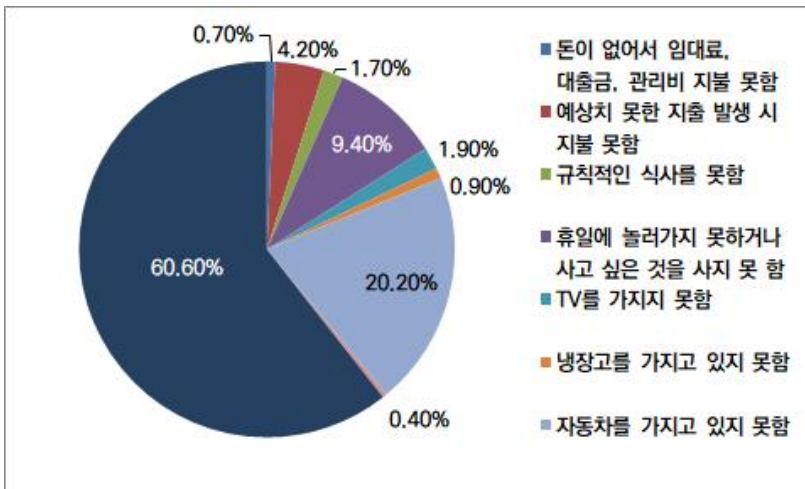
2. 금융자산

■ 물질적 박탈감 경험

-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로 답한 것이 20.2%로 가장 많았고,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우라고 답한 응답자가 9.4%로 나타남

〈표 3-1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항목	비율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지불 못함	0.7%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지불 못함	4.2%
규칙적인 식사를 못함	1.7%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 함	9.4%
TV를 가지지 못함	1.9%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못함	0.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함	20.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갖지 못함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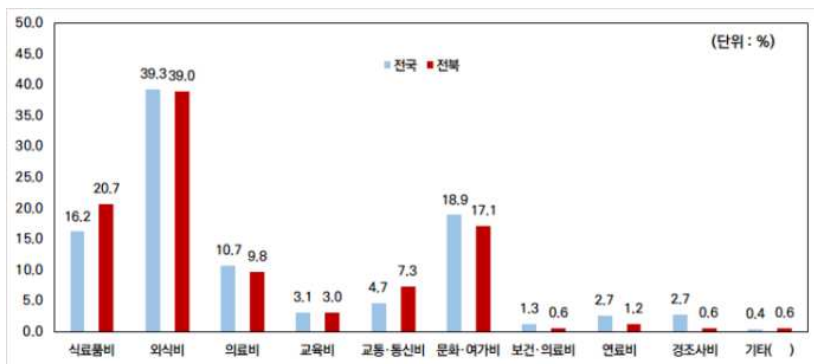
자료 : 김형주 외(2019) 209쪽

■ 건축 소비 지출 항목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사회조사의 전북 청년의 건축 소비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외식비가 3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식료품비가 20.7%, 문화·여가비가 17.1 등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청년의 경우 외식비, 문화·여가비, 식료품비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15〉 건축 소비 지출 항목

비고	전국		전북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3,345	100.0	164	100.0
식료품비	542	16.2	34	20.7
외식비	1,316	39.3	64	39.0
의료비	359	10.7	16	9.8
교육비	104	3.1	5	3.0
교통·통신비	157	4.7	12	7.3
문화·여가비	633	18.9	28	17.1
보건·의료비	42	1.3	1	0.6
연료비	89	2.7	2	1.2
경조사비	91	2.7	1	0.6
기타()	12	0.4	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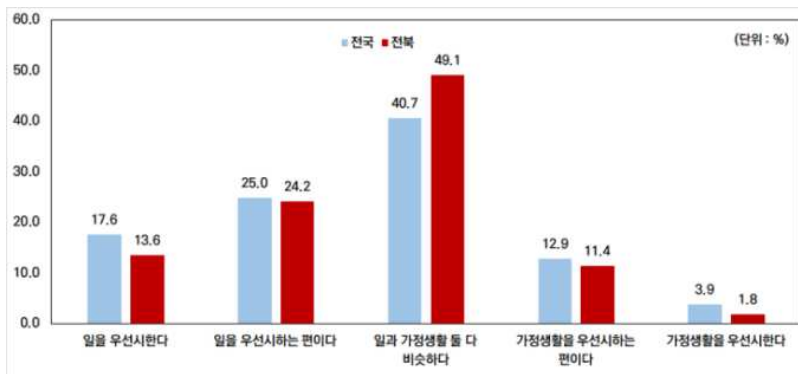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 > 사회조사 > 2019

■ 일과 가정의 중요도

- 전북 청년의 일과 가정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결과를 살펴보면,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9.1%로 가장 많고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가 24.2%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청년의 일과 가정의 중요도 응답자 비율도 전라북도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순으로 나타남

〈표 3-16〉 일과 가정의 중요도

비고	전국		전북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6,005	100.0	273	100.0
일을 우선시한다	1,054	17.6	37	13.6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1,499	25.0	66	24.2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	2,443	40.7	134	49.1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776	12.9	31	11.4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233	3.9	5	1.8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 > 사회조사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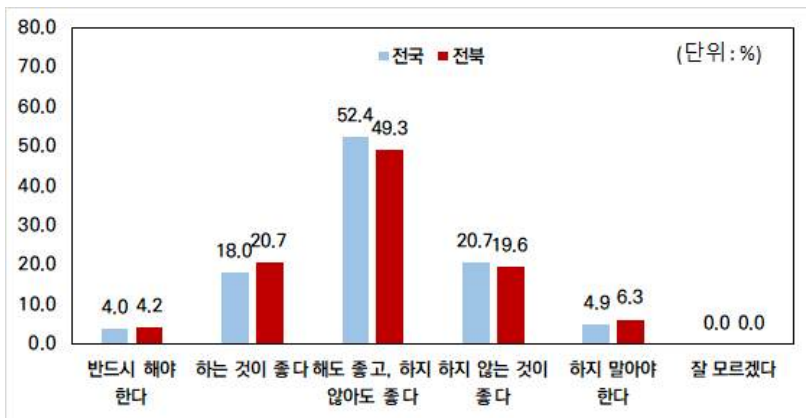
3. 결혼·육아

■ 결혼에 대한 견해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도 사회조사의 전북 청년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9.3%로 가장 많고 '하는 것이 좋다'가 20.7%로 나타남
- 전국 청년의 경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7〉 결혼에 대한 견해

비고	전국		전북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합계	10,435	100.0	479	100.0
반드시 해야 한다	417	4.0	20	4.2
하는 것이 좋다	1,874	18.0	99	20.7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5,468	52.4	236	49.3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64	20.7	94	19.6
하지 말아야 한다	512	4.9	30	6.3
잘 모르겠다	0	0.0	0	0.0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 > 사회조사 > 2018

■ 결혼 의향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청년패널조사(2019)에서 전라북도 청년의 결혼의향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청년의 결혼 의향에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1.1%로서 전국 평균인 53.2%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결혼 의향

비고		있다	없다	합계
전국	응답자수(명)	2,215	1,947	4,162
	비율(%)	53.2	46.8	100.0
전북	응답자수(명)	28	62	90
	비율(%)	31.1	68.9	100.0

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 > 청년패널조사(결혼의향)

■ 결혼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이유는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혼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어서'가 24.4% 임

〈표 3-19〉 결혼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비고	응답자수(명)	비율(%)
독신생활이 좋아서	3	3.8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	37	47.4
결혼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어서	19	24.4
학업 때문에	1	1.3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1	1.3
가사나 육아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1	1.3
실업상태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서	8	10.3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6	7.7
나의 건강이나 장애로 인해	1	1.3
장애 또는 만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0	0.0

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 > 청년패널조사(결혼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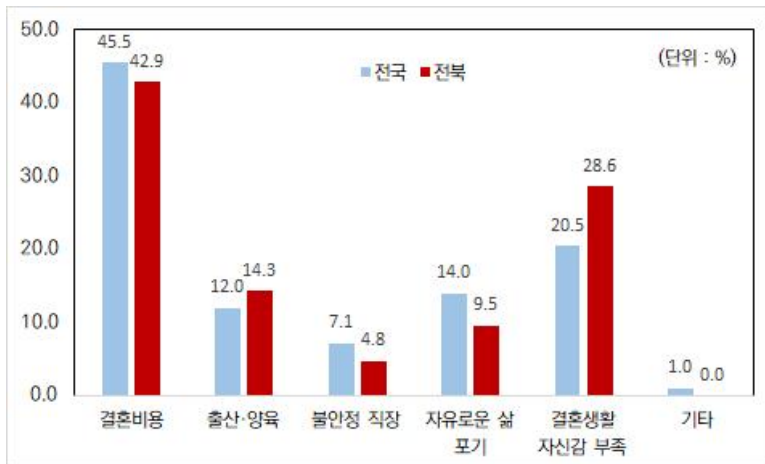
주 : 결혼 의향 응답자 90명 중 사유에 미응답한 12명은 제외한 값

■ 결혼을 망설임 이유

-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결혼비용 때문에’가 45.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20.5%,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4.0%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청년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응답수가 적으므로 경향성만 참고)

〈표 3-20〉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고	전국		전북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308	100.0	21	100.0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140	45.5	9	42.9
출산 혹은 양육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37	12.0	3	14.3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22	7.1	1	4.8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43	14.0	2	9.5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63	20.5	6	28.6
기타	3	1.0	0	0.0



자료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nypi.re.kr/archive>)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

■ 출산 의향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청년패널조사(2019)에서 전라북도 청년의 출산의향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출산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5.4%로 전국 평균인 39.7.2%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출산 의향

비고		있다	없다	합계
전국	응답자수(명)	1,384	2,099	3,483
	비율(%)	39.7	60.3	100.0
전북	응답자수(명)	24	44	68
	비율(%)	35.3	64.7	100.0

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 > 청년패널조사(출산 의향)

■ 출산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이유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70.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가 13.6% 순 등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2〉 출산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비고	응답자수(명)	비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6	13.6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1	2.3
나이가 많아서	3	6.8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2	4.5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31	70.5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	2.3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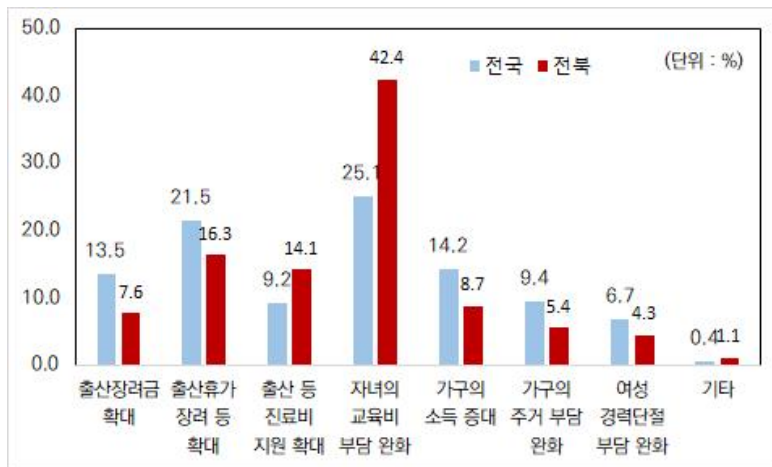
자료 :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 > 청년패널조사(출산 의향 또는 계획이 없는 이유)

■ 출산 대책

- 청년들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출산 대책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5.1%로 가장 많았고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21.5%, ‘출산장려금 확대’ 13.5%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청년 역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지적하고 있음(응답수가 적으므로 경향성만 참고)

〈표 3-23〉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고	전국		전북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2,321	100.0	92	100.0
출산장려금 확대	313	13.5	7	7.6
출산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499	21.5	15	16.3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214	9.2	13	14.1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582	25.1	39	42.4
가구의 소득 증대	330	14.2	8	8.7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218	9.4	5	5.4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155	6.7	4	4.3
기타	10	0.4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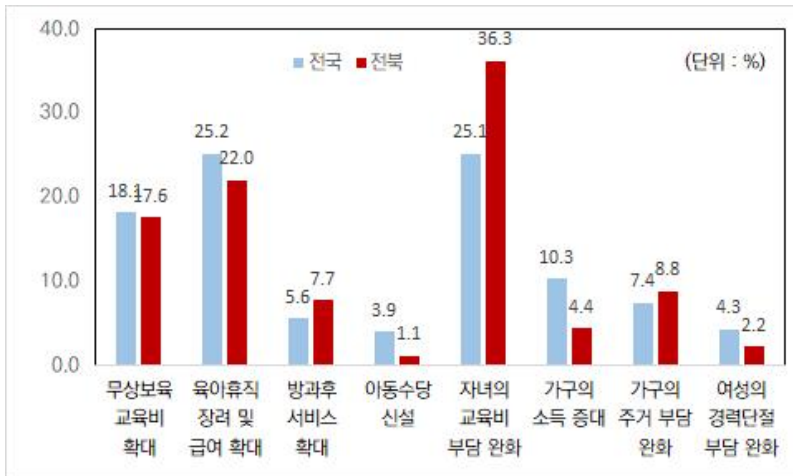
자료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nypi.re.kr/archive>)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

■ 육아 대책

- 육아 대책에서 청년들은 ‘육아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각각 25.2%, 25.1%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대책으로 생각하였고, ‘무상보육 교육비 확대’가 18.1%로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
- 전북의 청년은 출산대책과 같이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음(응답수가 적으므로 경향성만 참고)

〈표 3-24〉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고	전국		전북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2,315	100.0	91	100.0
무상보육 교육비 확대	420	18.1	16	17.6
육아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583	25.2	20	22.0
방과후 서비스 확대	129	5.6	7	7.7
아동수당 신설	91	3.9	1	1.1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582	25.1	33	36.3
가구의 소득 증대	238	10.3	4	4.4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172	7.4	8	8.8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100	4.3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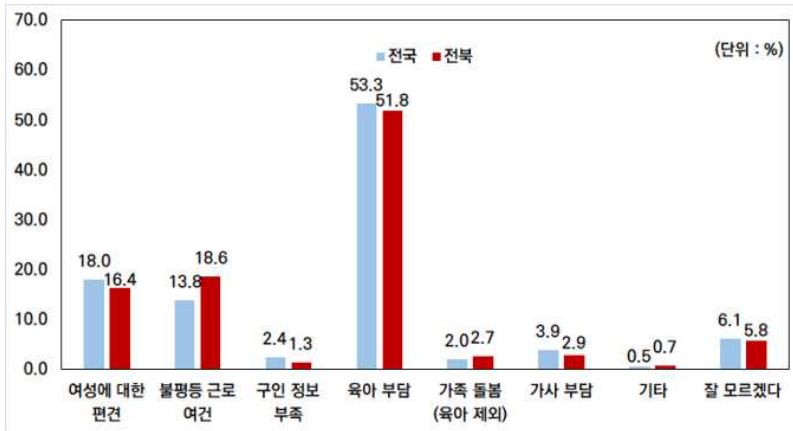
자료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nypi.re.kr>)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17년

■ 여성취업 장애 요인

-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여성취업 장애 요인으로 ‘육아 부담’을 전국적으로는 53.3%, 전북에서는 51.8%가 응답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또는 이는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표 3-25〉 여성취업 장애요인

비고	전국		전북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9,620	100.0	452	100.0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1,732	18.0	74	16.4
불평등 근로 여건(채용, 임금 등)	1,332	13.8	84	18.6
구인 정보 부족	232	2.4	6	1.3
육아 부담	5,124	53.3	234	51.8
가족 돌봄(육아 제외)	189	2.0	12	2.7
가사 부담	376	3.9	13	2.9
기타	47	0.5	3	0.7
잘 모르겠다	588	6.1	26	5.8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 > 사회조사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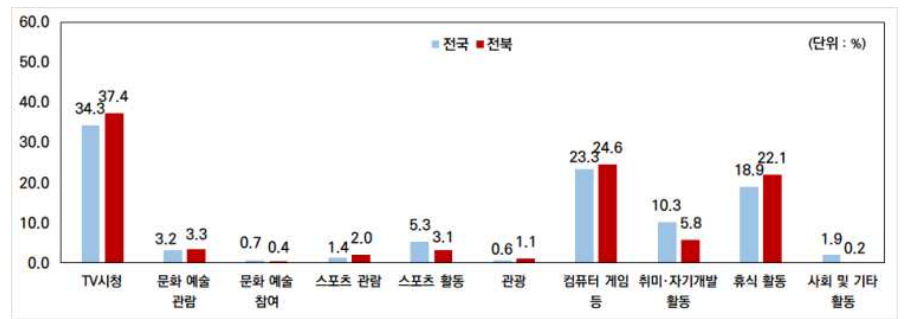
4. 문화

■ 주중 여가활동

-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주중여가활동으로 전국과 전북청년이 모두 TV시청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표 3-26〉 주중 여가활동

비고	전국		전북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9,620	100.0	452	100.0
TV시청(유선방송, IPTV, DVD(비디오) 시청 등)	3,296	34.3	169	37.4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음악연주회, 미술전시회 등)	312	3.2	15	3.3
문화 예술 참여(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63	0.7	2	0.4
스포츠 관람	139	1.4	9	2.0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골프, 당구, 체조, 승마 등)	513	5.3	14	3.1
관광(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60	0.6	5	1.1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2,241	23.3	111	24.6
취미·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87	10.3	26	5.8
휴식 활동(수면, 사우나 등)	1,821	18.9	100	22.1
사회 및 기타 활동(봉사 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187	1.9	1	0.2
기타()	1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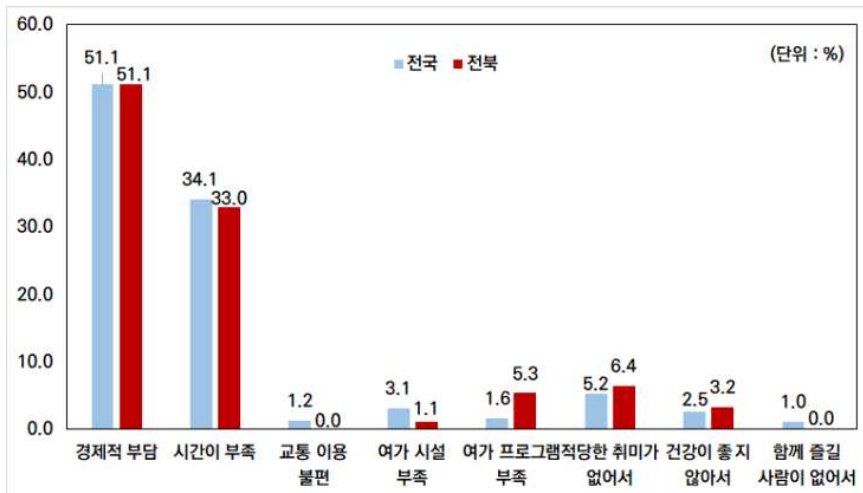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 > 사회조사 > 2019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여가 활동이 불만족인 이유로는 전북과 전국 모두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시간 부족을 그 다음 요인으로 선정하였음

〈표 3-2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비고	전국		전북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2,023	100.0	94	100.0
경제적 부담 때문에	1,034	51.1	48	51.1
시간이 부족해서	690	34.1	31	33.0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24	1.2	0	0.0
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62	3.1	1	1.1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32	1.6	5	5.3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105	5.2	6	6.4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51	2.5	3	3.2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21	1.0	0	0.0
기타()	4	0.2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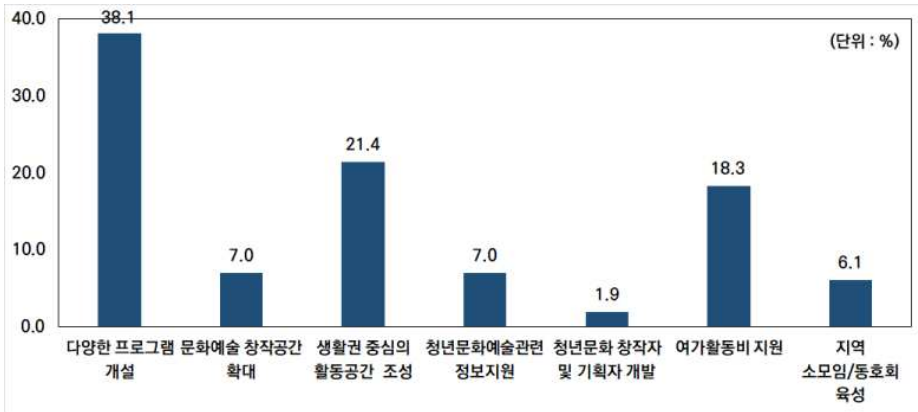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kostat.go.kr) > 사회조사 > 2019

■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정책

- 2019년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정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였음

〈그림 3-2〉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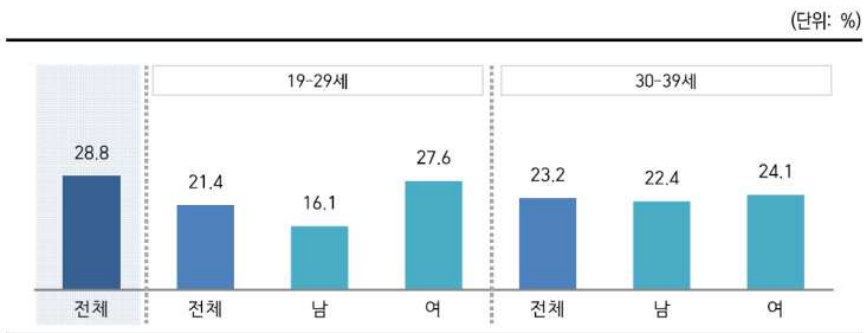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KOSIS)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5. 건강

■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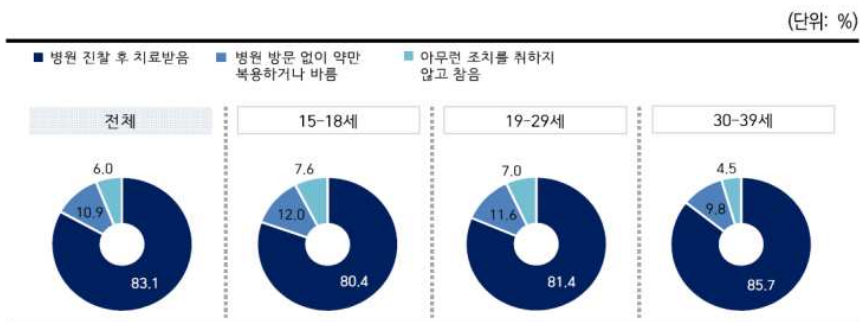
- 청년들은 질환이 발생하면 전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청년들이 입원을 제외하고 최근 2주간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비율이 28.8%로 나타나고 있어, 2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청년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질환 발생 시에 청년의 83.1%는 병원에서 진찰 후 치료를 받고 있음
- 일부 청년은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도 약만 복용하거나 참으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청년들은 79.8%가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라고 조사됨

〈그림 3-3〉 청년 병원 이용률



출처 : 김형주 외(2019) 2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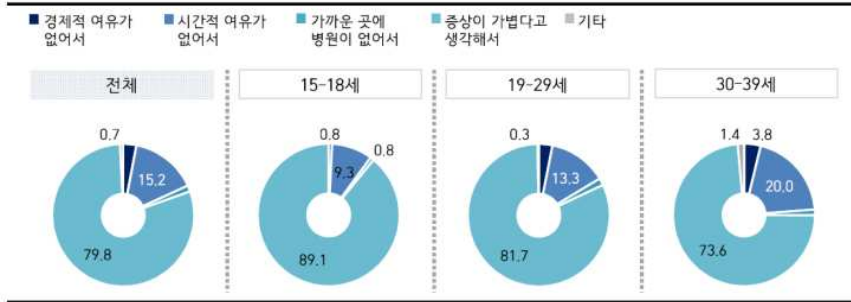
〈그림 3-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출처 : 김형주 외(2019) 276쪽

〈그림 3-5〉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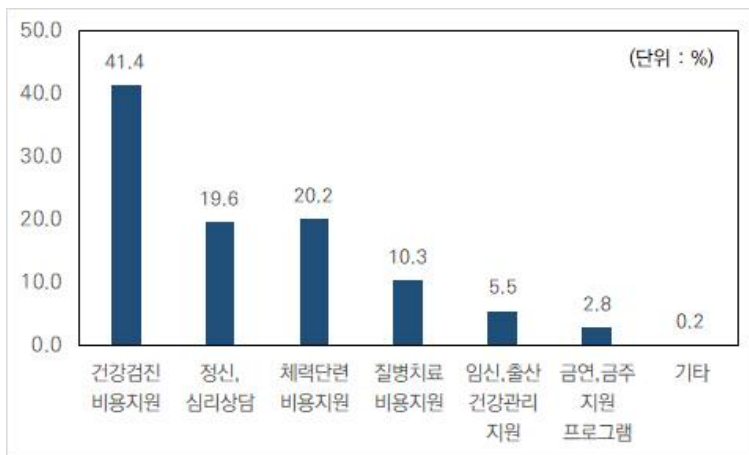


출처 : 김형주 외(2019) 277쪽

■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2019)에서 청년들은 82.5%가 ‘건강하다’(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 58.9%와 ‘매우 그렇다’ 23.6%를 합함)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건강검진 수검율은 44.3%에 그치고 있어 과반 이상의 청년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김형주 외2 2019, 259-275)
- 남원시에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9)를 통해서 청년들은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건강검진 비용지원’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림 3-6〉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 : 통계청(KOSIS)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제3절 전북 청년 의식

1.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전라북도의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단’(이하 청년포럼단)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함
 - 청년포럼단은 2016년부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된 전라북도 청년소통협의체로서 전북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에 대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조직임
 - 전북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 시군별 청년협의체 및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2~3명씩을 추천받고 일부는 온라인 공모를 실시하여 구성됨
- 청년포럼단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전북 청년의 주거거주와 생활에 관한 의식을 조사함
- 조사는 2020년 8월 20일 ~ 9월 8일간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짐(조사시기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설문조사의 진행에 제한이 있었음)

2)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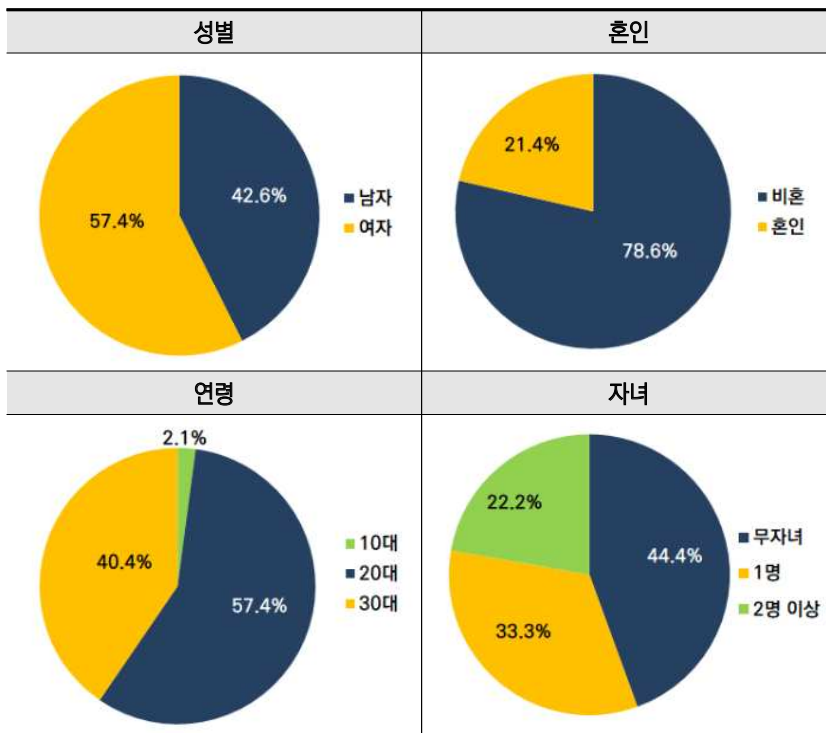
- 청년 생애주기 중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분야를 조사함
- 각 지원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조사함
 - 조사 항목 : 정책지원 필요 시기, 우선 지원 필요 분야, 분야별(주택, 건강, 결혼, 문화, 교육, 자산) 우선 필요 사업
- 청년포럼단 총 93명 중 4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50.5%임

2. 조사결과

1) 응답자 일반 현황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2.6%이고, 여자가 57.4%임
- 응답자의 연령은 10대가 1명으로서 2.1%이고 20대는 27명 57.4%이며, 30대가 19명 40.4%임
- 응답자의 생애주기 상황은 직장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여 72.3%로 나타났고, 학생이 10.6%, 취업준비생인 8.5%, 퇴사 후 준비 중이 6.4%임
 - 직장인과 2.1%인 자영업을 합하여 경제활동자는 74.4%임
- 응답자의 78.6%가 비혼인 상태이고 21.4%가 혼인상태임
- 혼인상태인 청년 중 자녀가 없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고, 자녀가 1명인 경우는 33.3%, 2명 이상인 경우가 22.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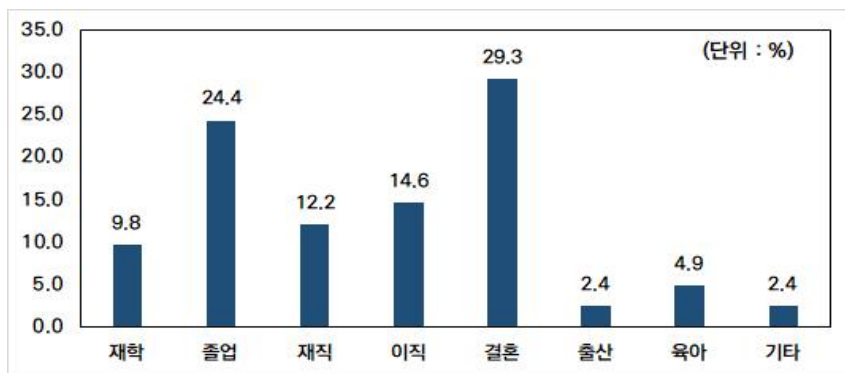
〈그림 3-7〉 응답자 현황



2) 정책지원 필요 시기

- 청년포럼단은 정책지원 필요시기로 ‘결혼’을 29.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고 ‘출업’ 24.4%, ‘이직’ 14.6% ‘재직’ 12.2% 순으로 선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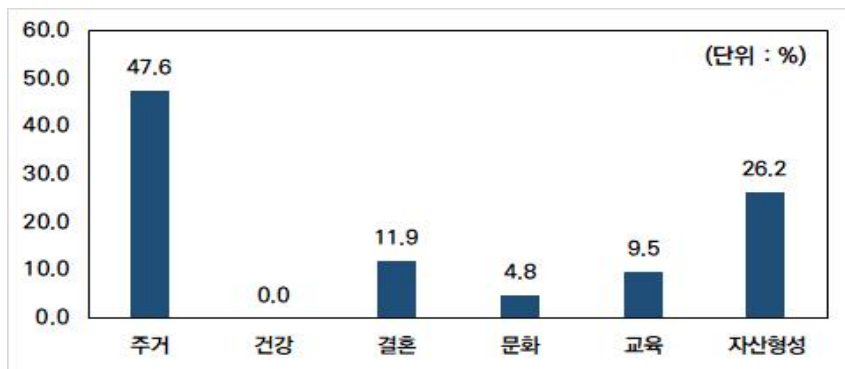
〈그림 3-8〉 정책지원 필요시기



3) 우선 지원 필요 분야

- 청년포럼단은 우선 지원 필요분야로 ‘주거’를 4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고, ‘자산형성’ 26.2%, ‘결혼’ 11.9% 순으로 선택하였음

〈그림 3-9〉 우선 지원 필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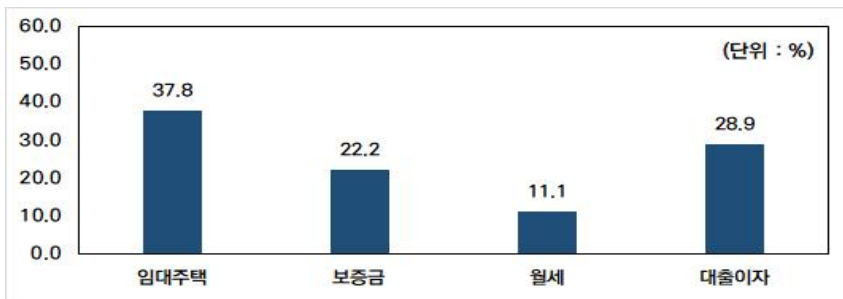


4) 분야별 우선 필요 사업

(1) 주택

- 청년포럼단은 주택관련 우선필요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37.8%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대출이자 28.9%, 보증금 22.2%, 월세 11.1% 순으로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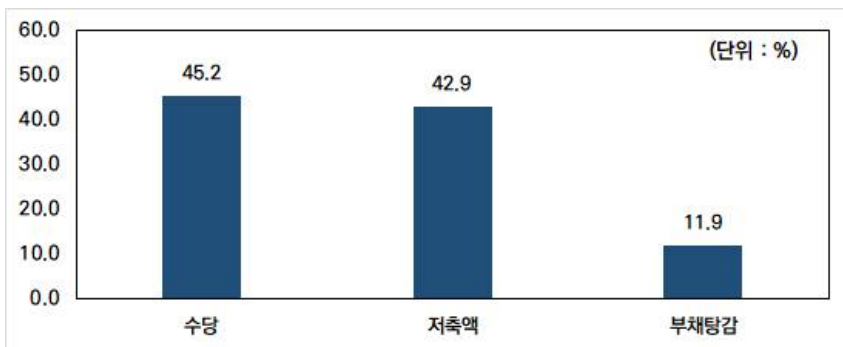
〈그림 3-10〉 주택관련 우선 필요사업



(2) 자산

- 청년포럼단은 자산관련 우선필요사업으로 청년수당을 45.2%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선택하였고 저축액을 42.9%, 부채탕감을 11.9%로 선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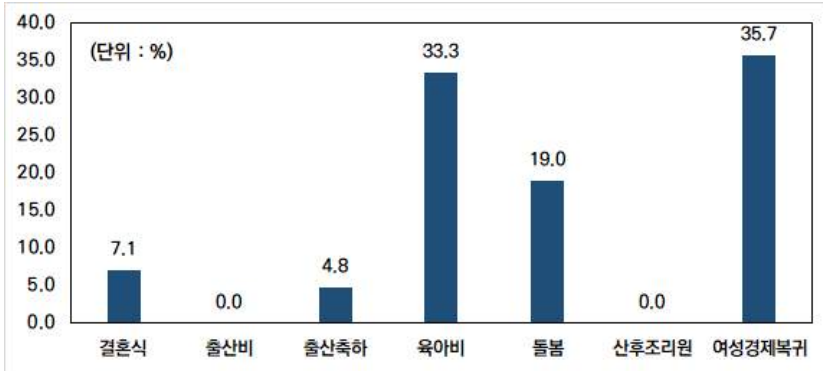
〈그림 3-11〉 자산관련 우선 필요사업



(3) 결혼

- 청년포럼단은 결혼관련 우선필요사업으로 여성경제복귀 지원을 35.7%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육아비 33.3%, 돌봄 19.0% 순으로 선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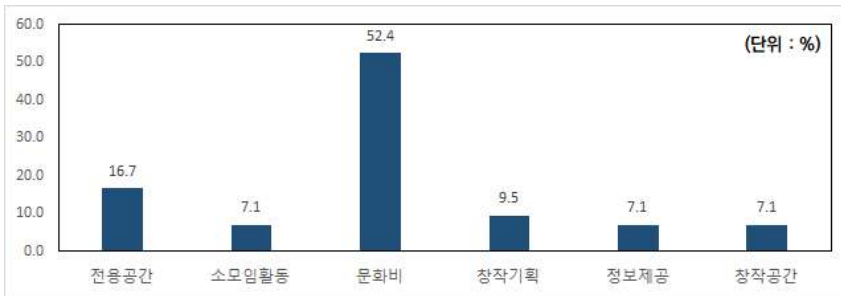
〈그림 3-12〉 결혼관련 우선 필요사업



(4) 문화

- 청년포럼단은 문화관련 우선필요사업으로 문화비 지원을 52.4%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선택하였고 전용공간 16.7%, 창작기획 9.5% 순으로 선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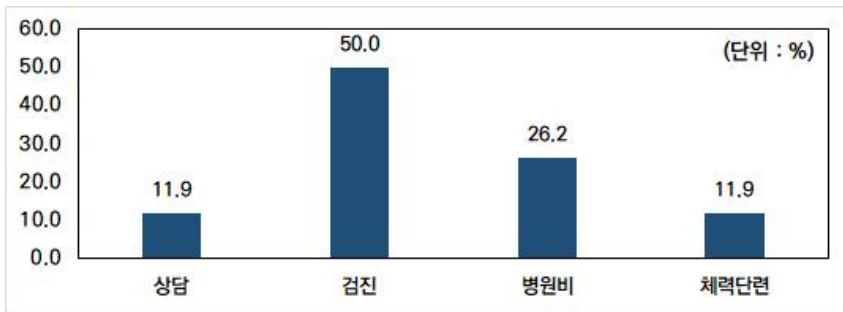
〈그림 3-13〉 문화관련 우선 필요사업



(5) 건강

- 청년포럼단은 건강관련 우선필요사업으로 건강검진 지원을 50.0%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선택하였고 병원비 26.2%, 상담 및 체력단련 11.9% 순으로 선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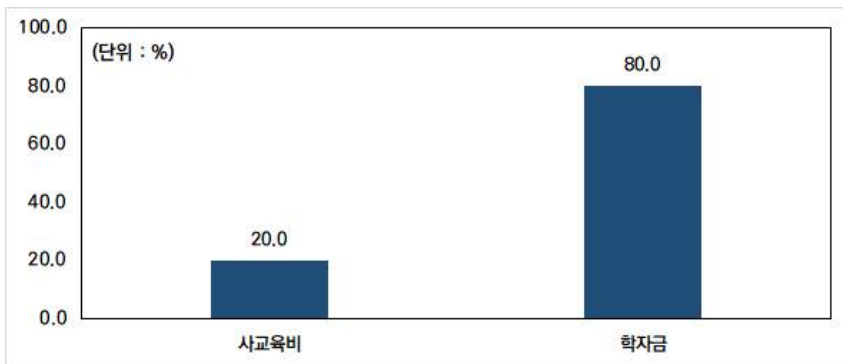
〈그림 3-14〉 건강관련 우선 필요사업



(6) 교육

- 청년포럼단은 교육관련 우선필요사업으로 학자금 지원을 80.0%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선택하였고 사교육비 지원을 20%로 선택하였음

〈그림 3-15〉 교육관련 우선 필요사업



제4절 전북 청년 실태와 과제

1. 전북 청년의 감소

- 전북은 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경향임
- 전북의 향후의 인구를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청년의 감소는 자연감소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 전북 청년은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는데 이는 원룸의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임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은 주거분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청년들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3. 경제적 어려움

- 전북의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 비해 낮고 고용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
- 청년들은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는 견해의 비율이 높음
-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을 가장 불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서 자산형성을 선택했는데, 주거분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받은 분야임
- 여러 단계의 생애전환기에 걸쳐있는 청년들이 다음단계 준비를 위해 자산형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요청됨

4. 결혼 등 생애전환기에 지원

-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의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3%로서 가장 많았고, 24.4%를 선택한 졸업의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임
- 청년들은 일반적인 생애의 과정으로서 결혼을 중요하게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고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사회의 지속성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생애전환기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5. 청년 문화 수요

- 건축 소비지출 항목으로 문화·여가비는 외식비와 식료품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소비를 줄이는 항목으로 조사될 만큼 문화소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여가활동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함

〈표 3-28〉 정북청년 실태

구분	주거	경제자산	결혼육아	문화	건강
청년 실태	- 전북 전체 가구의 20%가 청년가구 - 전북청년은 전국 대비 단독주택 거주 비율 높음 - 전국대비 원룸 거주 비율 높음 - 청년가구 주거비는 전체가구보다 많이 지출	- 낮은 경제활동 참여 - 일과 가정생활을 둘다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 - 학자금 마련 부담	- 높은 결혼 감소율 - 높은 출산 감소율 -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다고 좋다고 생각	- 여가활동은 TV시청, 컴퓨터 게임은 많음 - 반면, 자기개발과 문화·스포츠의 직접 참여는 낮음	- 보통 또는 건강한 편으로 생각하지만,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평가 높음
청년 의식	- 주거비용 부담 큼 - 주거분야가 우선적 정책지원 분야로 선정 -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정책 필요 인식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출산 의향·계획 없는 비율 높음 - 청년수당 지원과 저축액 지원 정책 요청 높음	- 전국 대비 결혼 의향이 낮음 - 전국 대비 출산 의향 낮음 - 육아 부담이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인식 높음 - 정책지원 필요 시기는 '결혼'기 - 육아비 지원 정책 요청 높음	-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활동 불만족 -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 높음 - 문화비 지원 정책 요청 높음	- 건강검진 비용 지원 정책 요청 높음
과제	- 청년가구 주거문제 대응 필요 - 청년가구 주거비용 지원 필요 - 주거안정 위한 주택수당 지원	- 생애전환기에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한 자산 마련 필요 - 청년 생활안정 위한 수당 지원 필요 - 지역 정착위한 경제적 격려 - 안정적 학습 여건 제공	- 결혼식 비용, 육아비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 - 결혼생활 지원 - 육아 및 돌봄 여건개선 지원	- 지역 특성에 따른 문화 향유를 위한 비용 지원 - 문화활동(창작 등) 기획의 제공	- 건강체크와 건강유지 지원

4

장

청년 지원 방안

Jeonbuk Institute

-
1. 방향 및 전략
 2. 전략별 정책 방안

제4장 청년 지원 방안

제1절 방향 및 전략

1. 청년 지원 방향

1)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

- 우리나라 전반적인 청년들은 주거와 생활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라북도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음
- 그러나, 전북의 청년은 전국과는 다른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다가구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이 전북은 49.6%로서 전국의 35.9%보다 13.7%p 더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도 전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가활동에서 전북의 청년은 전국에 비해 TV시청과 컴퓨터게임, 휴식활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자기개발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이지만 전북의 청년은 전국에 비해 여가프로그램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청년 연령인 20대와 30대는 사회에서의 위치와 지위가 다르고, 또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많은 생애에서 중요한 단계를 지나는 시기이므로 각 생애주기마다 청년들의 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음
- 전국과 다른 전라북도 청년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2)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지원

- 정책의 시행은 단시일에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임
 - 정책효과는 평가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정책산출(outputs), 정책성과(outcomes), 정책영향(impacts)로 나뉘는데, 정책영향은 사업을 통해 다른 부문에 영향이 미치는 것까지 의미함(이정주 2008, 4)

- 정책은 당해 부문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전반에 파급되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목표로 함
- 청년의 지원 정책 역시 청년들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3) 지역에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 청년의 인구이동은 전북에서의 전출이 전북으로의 전입보다 높은 상황임
 - 전북 청년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많고 특히 20~39세 청년들의 전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에 일자리와 관련하여 창업과 취업 등 경제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북의 청년들이 이동하게 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면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삶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기존 세대의 일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일과 가정을 동일하게 중요시 하고 있고, 특히 전북의 청년들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일과 가정을 동일시하고 있음

2. 청년 지원 전략

1) 청년 수요 대응

-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문제 해결과 정책의 발굴이 필요함
- 전국의 청년과 차이가 발생하는 전북의 청년이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함
- 청년의 수요는 본 연구의 대상인 주거, 금융자산, 결혼육아,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들의 상황과 의식조사에 나타난 분야별 수요에 대응함

2) 정책 소외 대응

- 청년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의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님
- 사업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에 제한이 있거나 대상자 또는 미혼 대상자의 부모의 소득에 따른 경제적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음
- 기존 청년정책을 보면 본 연구의 청년의 대상인 18~39세의 일부인 19~34세가 정책들의 연령대상 범위로 분포하고 있음
- 청년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하면서 중위소득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분야의 복지정책도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청년 정책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음
-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는 저소득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정책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계층이나 연령의 수요에 대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함

3) 생애주기 맞춤형 대응

- 청년의 시기에 거치게 되는 여러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상황이 다르므로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이 필요함
- 청년의 시기에는 대학교 졸업, 취업, 결혼 등의 생애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졸업에 따른 취업준비와 취업 후의 재산 형성, 결혼에 따른 출산 및 육아에 따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게 됨
- 따라서, 청년들의 요구와 수요가 변화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정책들이 필요하게 됨

4) 청년특성에 따른 보편적 지원

-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청년정책의 전략은 청년수요와 정책실태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 보강, 보완, 유지를 하고 청년계층 전반적인 지원 정책에 모색임

〈그림 4-1〉 청년지원 전략 및 지원사업



제2절 전략별 정책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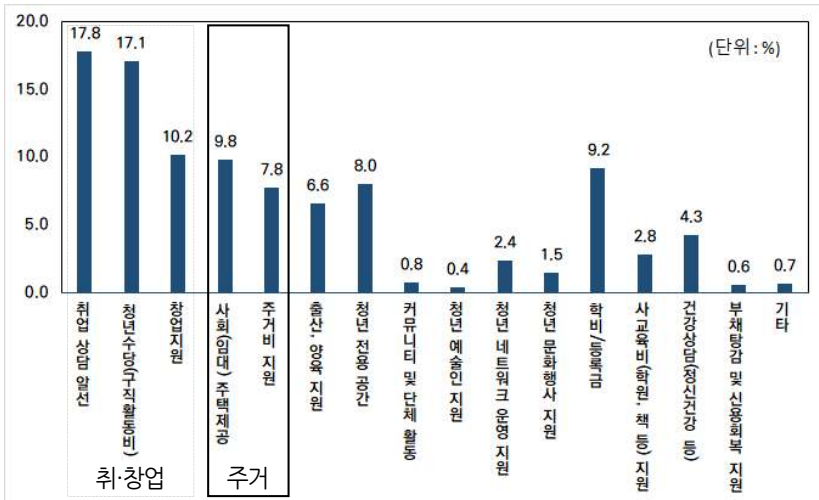
1. 청년수요 대응 지원

1) 전라북도 청년 주거비 지원(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책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 분야인 생활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면 주거와 관련한 정책임
- 청년들은 임대주택 제공과 주거비 지원 등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대학생에만 한정되는 ‘학비/등록금’ 제외)
- 임대주택의 공급은 주거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주택의 건축과정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음
- 청년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고 신속하게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그림 4-2〉 1순위 청년지원 정책 응답률(%)



자료 : 통계청(KOSIS)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청년의 주거비 부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공간의 임차를 위하여 지불되어야 하면서도 금액이 매우 큰 전·월세 보증금임
-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보증금을 자력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청년이 대출한 주거 임차보증금으로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북을 주소지로 하는 주택을 임차하려는 무주택 청년가구주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의 2%를 지원(본인은 하한으로 1%를 부담)
- 지원자격
 - 임대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금 환산액 2억 원 이하 월세 임차주택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인 최대 2년(계약 연장에 따라 지원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사례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⁶⁾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에게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
 - 최대 7,000만 원의 한도의 대출에 대하여 대출금의 연 2.0%를 지원해줌으로써 본인은 이자부담을 줄여줌

6)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참고

- 만 39세까지 지원하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하고 회수에 제한 없이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함

2) 청년수당의 확대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가구주 기준으로 청년의 2018년 월임금총액은 약 303만원이지만 청년가구 월 가계지출액은 약 333만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임(김형주 외2 2019, 196~197)
- 전북도내 청년들이 자산관련 사업 중 수당지급을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 중 45.2%가 수당지급 사업을 선택함
- 전북도에서 시행 중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음
 - 농업,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도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2019년에 실시함
- 청년의 선호도가 높고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 등은 기존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내용을 유지함
- 지원대상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범위 확대
 - 기존의 수당의 지급자격은 농업,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하였으나 전북 청년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분야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음
 - 전북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분야의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지원범위 축소
 - 전체 청년계층에게 지원하기 보다는 수당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년 이상 소득 있는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1,000명 선발
- 지원내용 : 월 30만 원씩 지급
- 지원방법 : 포인트 연계 카드로 선 결제 후 포인트 차감 신청
- 지원기간 : 1년간 지급(매년 대상자 선발)

■ 사례

- 대구시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⁷⁾
 - 대구형 청년수당으로서 사회진입을 위해 다양한 도전에 대한 기회 제공 목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34세 인 대구거주 청년
 -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상담연결형은 청년생활 관련 생활상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청년에게 30만원 1회 지급하고, 진로탐색지원형은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며, 일경험지원형은 청년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고자하는 청년에게 150만원 1회 지급함

3) 지역정착 청년 격려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이유로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 삶을 영위하는 청년들을 격려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 완전히 정착한 청년에 대한 격려와 지원 필요

7) 대구광역시 청년지원센터(<http://www.dgyouth.kr>) 참고. 2020.9.30. 접속

- 청년들이 지역에서 5년 취업하고 생활을 유지하면 완전히 정착하여 타지역 이주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경향이 있음
- 지역정착 청년에게 타지역에서의 취업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 또는 지속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자산형성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함

(2)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도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도 내에서 일자리를 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한 청년 대상 격려금 지급
- 타 지역의 청년이 전북지역으로 전입하여 취업을 한 후 5년 간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지역에 정착한 청년에게 지역정착을 격려하도록 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지역 업체에 취업한 청년과 전북에서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유지한 전북전입 타지역 청년
- 지원자격 : 지역 취업 후 5년이 경과하고 취업상태인 청년
- 지원내용 : 1,000만 원 지급
- 지원조건 : 격려금 수령 후 2년까지 이주 제한(불가피한 상황 제외)

4) 공공기관 장학금 지원(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역할이 있음
 -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 의무를 가짐(전북혁신도시는 2019년 102명을 채용하여 채용비율 25.5%로서 당해연도 목표 채용비율인 21.0%를 달성, 국토교통부 2020)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기여에 대한 역할 수행 필요

- 이전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사항 중에 산학협력 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이전기관은 선제적으로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재확보와 지역인재 채용의무 수행과 함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 기여의 실적을 제고
- 장학금 수혜 학생은 양호한 기업 취업기회 확보와 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 전념 가능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이전기관 특화형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원

- 이전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우수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
- 장학생 선발권은 이전기관에 부여
- 장학금은 이전기관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마련

○ 이전기관 채용에서 가점 부여

- 채용절차에서 이전기관의 우수학생 선발권을 인정하고, 장학생에 대한 채용가점 부여
- 이전기관의 장학금 기탁의 수혜 보장
-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자격 : 별도 선발기준 제시(이전공공기관별 기준 마련)

○ 지원기간 : 매년 선정(중복 선정 가능)

○ 사업내용 : 이전공공기관과 전북도가 7:3 매칭 지원(13개 이전기관과 협의) 이
전공공기관 명의의 장학금 조성 및 수여

○ 참여기관

- 장학금 조성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12개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채용 시 가점부여 : 기관에서 자체적인 채용이 가능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가점부여 방안 마련 후 시행

5) 신혼부부 자동차 리스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결혼과 육아에 따른 이동 편의성 제공

-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탈감을 경험한 경우가 20.2%에 이릅니다

〈표 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항목	비율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지불 못함	0.7%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지불 못함	4.2%
규칙적인 식사를 못함	1.7%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함	9.4%
TV를 가지지 못함	1.9%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못함	0.9%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함	20.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갖지 못함	0.4%

자료 : 김형주 외(2019) 209쪽

-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이동 회수 및 수화물의 증가에 따른 개인 이동수단 필요
- 자동차 구입에 따른 결혼초기 일시적인 큰 규모의 지출 부담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자동차 리스 비용 지원
 - 일시적인 자동차 구입 초기비용 지출 없이 소규모 비용으로 자동차 이용
 - 정해진 기간동안 리스 비용 지원
 - 자동차 리스는 일반번호판 부착으로 리스 자동차 식별 안 됨
 - 리스 기간동안은 당해지역 거주 요건으로 인한 지역정착 유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1년~(매년 100쌍)
- 사업대상 : 혼인신고 후 5년 이하 또는 출산예정 및 만2세 이하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 2년(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장 4년)
- 지원내용 : 월 15만원 한도에서 리스비용 지원(기아 K3 월 리스비용 약 12만
원(36개월 이용, 선납금 30% 경우, 중도 사고 시 수리에 따른 추
가부담비용 및 중도해지 시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자동차 리스 장단점 비교

- 장점
 - 자동차 이용(구입) 초기부담 낮음
 -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
 - 비용처리 가능(사업자 등 절세를 위해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음(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할증 없음)
 - 인수와 반납 선택 가능
 - 개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동차보험료율이 좋을 경우 유리, 보험경력 인정)

○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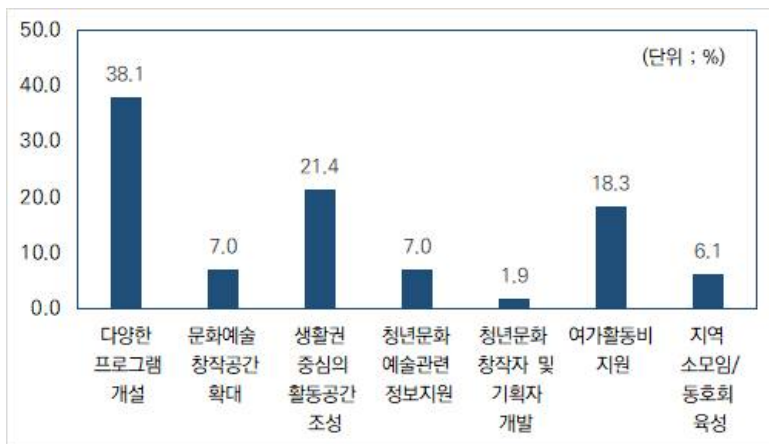
- 주행거리 제한(일반적으로 연간 3km, 초과시 1km당 100원 추가비용 발생)
- 대출한도 제한(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되어 부채가 되어 대출한도 포함)
- 장기계약(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 계약기간 중 사고 시 수리비 개인 부담
- 중도 해지시 위약금 지불

6) 문화비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청년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문화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낌
 - 청년이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 활동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
 - 전국 청년은 주중의 여가활동에서 TV시청(34.3%)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예술 관람은 3.2%에 그침
 - 전북의 청년은 주중의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이 37.4%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 관람은 3.3%임
 - 여가활동이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청년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51.1%(전북 51.1%)로 가장 많이 나타남

〈그림 4-3〉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 통계청(KOSIS)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전북 청년들은 문화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 전북 청년포럼단의 문화관련 우선적 필요정책으로 문화비 지원을 과반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전북 청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음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청년의 문화예술 관련 소비활동비 지원
 - 문화예술 분야와 관계없이 문화 및 여가 소비 비용 지원
 - 청년들에게 물질적인 측면보다 훨씬 중요한 정신적·심리적 만족감 제공
 - 지자체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에 따른 애항심 또는 지역애착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거나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미만의 청년
- 지원내용 : 연 5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연계 카드로 선결제 후 포인트 차감 신청
- 지원조건 :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에만 사용가능하고 관련 증빙 제시

■ 사례

- 강릉시의 '청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대상
 - 개인당 30만원을 생애 1회 지원
 - 국민연금납부액 월112,500원 미만, 월 평균 보수액 250만원(세전)미만의 지급대상 조건

7) 청년 실손의료보험료 납부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은 82.5%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건강검진을 받은 청년들은 44.3%에 그치고 있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청년들은 과반을 넘는 55.7%에 달함
-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하는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력을 갖지 못하므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의료비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청년들의 최근 2주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병원 이용률이 평균적으로 28.8%에 달함(김형주 외2 2019, 271)
 -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79.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5.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0%,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1.4%, ‘기타’ 0.7%)로서 가장 높지만,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치료, 약만 복용, 조치 없이 참는 행위 중 주로 취하는 조치는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을 83.1%로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어, 청년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알 수 있음(김형주 외2 2019, 276~278)
- 청년들의 다빈도 질환 보장성 의료보험 부족
 - 청년들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2106)은 77.7%(김형주 외2 2019, 273)로 비교적 높지만 민간 의료보험은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에 치중되어 있고 다빈도 질환은 보장항목에서 제외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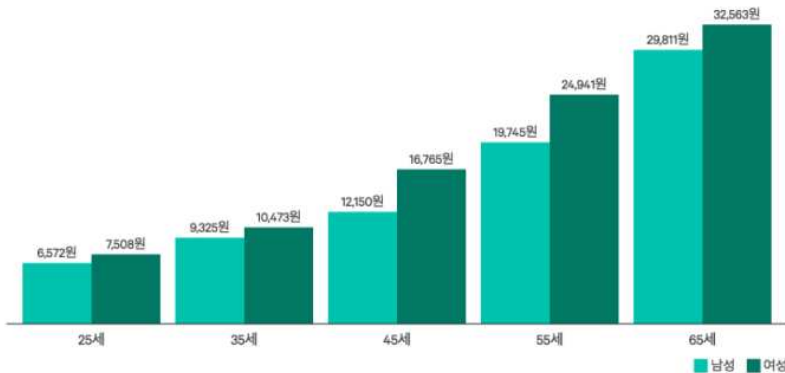
- 건강사회 유지와 사회적비용 손실 방지를 위하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북도 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경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주로 가입되어 있는 중증 질환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으로 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다빈도 질환에 대해 청년들에게 치료비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건강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에서 초래된 질환에 대한 오해로 치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원인 청년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라북도 노동경쟁력 제고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독립세대를 구성한 모든 청년 1인가구
- 지원내용 : 실손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전액 지급(1년간)
- 소요예산 : 4억 원
 - 전라북도 청년 1인가구 64,524가구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여 지원대상을 약 5만 명으로 계산
 - 청년 중에도 연령별 보험료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8,000원으로 계산

〈그림 4-4〉 나이에 따른 평균 실손의료보험료 견적 비교



출처 : <https://www.valuechampion.co.kr/medical-insurance/대한민국-평균-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보험료-견적>

- 지원조건 : 납부 지원기간인 1년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보험 유지

2. 정책소외 대상 지원

1) 후기 청년⁸⁾ 주택수당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청년주거 정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음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및 전북도의 정책들이 연령으로는 19~34세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소득수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청년정책 중 전복과 관련이 적은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정책을 제외하면 35세 이상이고 주거급여 대상 이상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없는 상태임
- 후기 청년은 장년의 전 단계로서 안정적으로 장년으로 진입되어야 사회의 튼튼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음
 - 주거급여 이상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후기 청년은 더욱이 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 충분하지 않은 소득과 함께 전기 청년과 비교하여 가구원수도 많기 때문에 주거 수요 역시 더 클 것임

(2) 사업내용

■ 사업 개요

- 주거정책과 자산정책에서 소외된 후기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함
- 3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후기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가구의 주거안정과 아이들의 양호한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후기 청년가구에 주거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주택수당을 지급함

8) 정책실태 분석에서 정책의 주요 대상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4~39세를 본 연구에서 지칭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북 청년가구 중 34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지급
- 지원자격 : 전북에 주민등록하고 3년 이상 거주
- 지원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2년 및 1회 계약연장을 감안하여 4년간 지원

■ 사례

- 김제시의 ‘청년주택수당’ 사업
 - 자녀가 있고 무주택인 19~39세인 청년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3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가 대상이 됨

2) 후기 청년 희망자산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자산 및 생활비 보조를 위한 정책이 후기 청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함
 - 34~39세까지의 청년을 위한 자산 관련 정책들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이 있지만 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단, 전북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39세까지 청년에게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이나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청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제한도 제시됨
- 장년으로 진입되기 전 단계인 후기 청년이 사회의 경제활동 주체가 되는 준비 단계로서 경제적 기반 형성에 지원되어야 함
 - 연령을 고려할 때, 결혼과 출산을 지나온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생활비용이 더 요구될 것임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34~39세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같은 청년에 속하지만 청년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함
 - 후기 청년이 안정적인 장년으로 진입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초기자금으로서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
- 사업기간을 장기로 하여 지속적인 지역거주와 근로활동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34~39세의 후기청년
- 지원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 1인가구 : 본인 30만원 + 10만원 지원 = 월 40만원 적립
 - 부부가구 : 본인 50만원 + 20만원 지원 = 월 70만원 적립
- 지원기간 : 3년
 - 1인가구는 3년 1,080만원 본인 적립으로 총 1,440만 원 자산 형성
 - 부부가구는 3년 1,800만원 본인 적립으로 총 2,520만 원 자산 형성

3) 취업준비생 주거비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청년 중 취업준비생이 생활 영위에 금전적으로 가장 취약함
 - 미취업상태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많지 않은 부모의 지원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정부의 취업지원을 받아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함
 -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 교통, 취업서류 준비비용의 마련도 쉽지 않음
- 생활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큰 과제임

- 청년은 대학입학과 졸업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함
 -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공간으로서 전세와 월세 등 주거 비용의 마련은 청년들에게는 큰 과제임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주거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선결 과제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 제공 필요
-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정책은 구직활동 비용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됨
 - 취업준비생이 정책대상에 포함된 주거부문의 지원정책은 월세대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인데, 대출은 청년들에게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주택이나 집주인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업준비생에게는 정책수혜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취업준비생이 안정적인 주거여건에 취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 취업준비생의 주거공간 임차형태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금이나 월세 형태가 아닌 주택소득 개념으로 하여 주거비용 직접 지원
 -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지원가능한 임차주택의 임차료 상한 제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교 및 대학 졸업 후 미취업한 도내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 지원자격 : 고교 및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중 월세 임차자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임대차계약서 확인, 취업교육 수강 및 취업노력 증빙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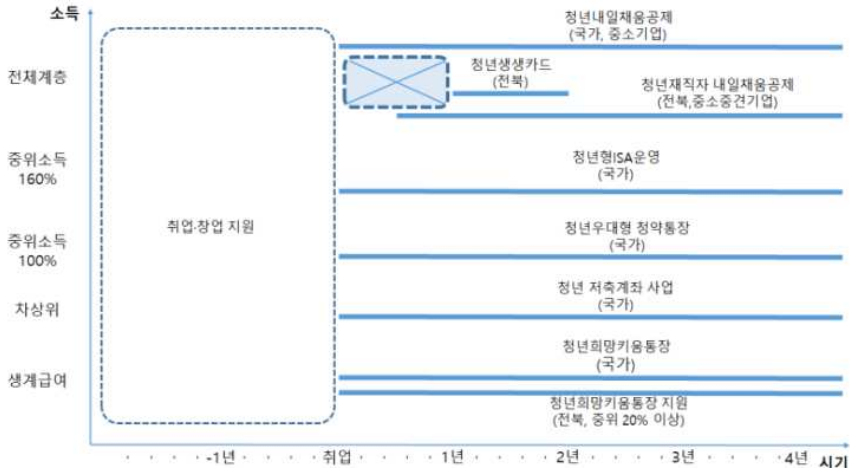
3. 생애주기 맞춤 지원

1) 사회초년생 자산형성 지원(두배로 통장)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첫 직장 취업자가 생애주기 다음단계 준비 필요
 -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 주거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때문임
 - 첫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초기자금을 마련해 줌으로써 생애주기 다음단계를 위한 준비 지원 필요
 -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혼수비용 등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주로 망설인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사회초년생이 다음단계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크게 작용함
- 사회초년생 지원
 - 국가 차원에서 취업자 또는 소득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진행 중
 - 전북 차원에서 취업 직후단계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없음

〈그림 4-5〉 취업 전후 지원정책 현황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청년 저축금액의 두 배 적립으로 자산 형성 지원
 - 청년 저축 금액과 동일 금액을 지원(10만원 저축시 10만원 지원하여 총 20만원 적립)
 - 1인가구형(10만원 저축)과 부부가구형(20만원 저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추진
 - 분기별 경제교육 이수 요건 제시(온라인 가능)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 1인가구 및 신혼가구(첫 직장 취업한 1년차 직장인)
- 지원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기간 : 1년 한정
- 지원내용
 - 1인가구형 : 본인 20만원 + 20만원 지원 = 월 40만원 적립
 - 부부가구형 : 본인 40만원 + 40만원 지원 = 월 80만원 적립
 - * 1인가구형은 연 480만원, 부부가구형은 연 960만원 적립
- 사업예산(연)
 - 1인가구형 : 500가구 × 20만원 × 12개월 = 120,000만원
 - 부부가구형 : 300가구 × 40만원 × 12개월 = 144,000만원

2) 결혼 패키지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큼
 - 전북 청년들의 약 절반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부정적 의견이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의 긍정적 의견보다 높음

-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 전북의 청년들은 생애주기 중에서 결혼의 시기에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 청년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서 여건만 마련된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의 하나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함
- 청년들의 결혼의 과정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결혼의 과정에 대한 금전적·심리적 부담의 경감 지원
 - 결혼 전에는 예비부부를 위한 건강검사(풍진 등 일반검사)를 지원하고 ‘부부학교’ 등 예비부부를 위한 부부와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 결혼식의 행사에는 예식장 등 예식공간을 지원하고 예식행사에 필요한 웨딩 패키지(예식장 장식, 혼례복, 부케 등) 서비스 지원
 - 전통혼례 및 작은결혼식 등 공공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결혼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청년 전체
- 지원자격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지원내용 :
 - 예비부부 건강검진 무료 지원
 - 예식공간 임차료(전주향교 및 전주한벽문화관 등 전통혼례 또는 작은결혼식 100만 원)
- 지원조건 : 예비부부 교육 수료

■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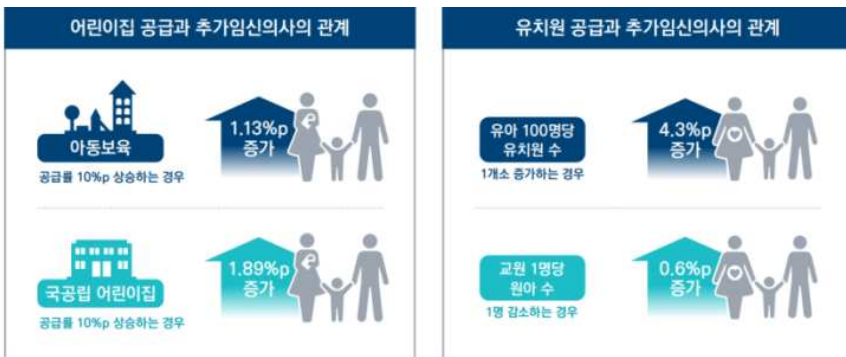
-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행복의 첫걸음”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추진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매년 10쌍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무료대관(군청, 간절 곳,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비상업적 공공기관 등) 및 웨딩패키지 등 작은결혼식 지원과 예비 부부 교육 지원 실시
 - 예식공간 및 예식패키지를 업체 위탁방식으로 1쌍당 200만 원 이내 지원

3) 육아공동체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없다는 것임
 - 육아는 맞벌이 가구의 소위 ‘독박육아’가 아닌, 이웃사촌인 마을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성취업으로도 연결되는데, 많은 여성들은 육아가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중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평등 근로여건’보다도 육아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요인보다 큰 차이를 보임
- 보육시설의 공급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급이 국민들의 임신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그림 4-6〉 보육시설 공급과 출산율 영향



*0~5세 아동보육 공급률과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은 각각 만 0~5세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백분율을 의미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NABO브리핑」 3쪽

○ 기존 육아 및 돌봄 지원사업 한계

- 기존의 사업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음
- 특정 시설을 활용하여 당해 공간에서만 이용에 따른 접근성 및 편리성 취약

〈표 4-2〉 육아 및 돌봄 시설 비교

구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사업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7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아동복지법 44조의2
설치·운영 주체	도지사, 시장, 군수	국가 및 지자체	도지사, 시장, 군수
설치·운영 의무여부	의무	비의무	비의무
기능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보육 관한 정보 수집·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자녀돌봄 공간 제공 -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 -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지원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돌봄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인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사업전담 종사자	센터장, 돌봄선생님
시설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수유시설, 기저귀 갈이 공간, 위생 시설 등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마을에서 자발적인 육아공동체 운영 지원
 - 마을에서 주민들 스스로 육아공동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모임(단체)에 활동비(운영비)를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비공식 육아공동체
- 지원자격 :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실행하는 주민공동체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지원 공동체를 선정하고,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공동육아 아이 1명 당 월 5만원
- 지원방법 : 육아공동체 소속 모자 확인 및 맞벌이 확인
- 지원조건 : 지출 증빙 및 매년 만족도 평가 참여

4. 보편적 지원

1) 예술인 첫발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 분야의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발표 기회가 부족하고 기성 예술시장에의 진입 장벽이 높음
 -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예술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됨
 - 문화예술 창작 및 작업 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예술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예술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어려움 있음
 - 공모로 추진되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사업들이 활동의 경험이 주요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신진 예술가들은 선정에 불리함
- 문화예술 분야의 기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험과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초기 작품발표 기회 제공 필요
 -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에게 작품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작품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경험과 경력 축적 기회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성 예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연이나 전시 및 발표를 하는 청년 문화예술가를 위한 문화공간 제공
 - 전북도청 내 1층에 자리한 전시장뿐만 아니라 도내 많은 공공기관이 다목적 공간을 보유하고 있음
 - 문화예술 전용 공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다목적 공간의 미이용 시간에 신진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작품발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
- 첫 작품발표와 준비에 필요한 창작활동 비용의 지원
 - 신진예술가들은 작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이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작품창작 비용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문화예술 전공의 전북도내 대학 졸업자
- 지원자격 : 전북도내 대학 졸업자 및 전북도 거주 1년 이상 신진예술가
- 지원내용 : 전시공간 지원, 작품창작활동비용 지원
 - (공간지원) 전북도립 미술관, 전북도청 전시실,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문화예술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진예술가들의 첫 작품 발표에 필요한 공간 제공
 - (비용지원) 매년 20팀을 선정하고 팀당 400~500만원을 창작활동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유형의 창작작품은 기부하고, 무형의 창작작품은 재능기부 형태로 복지기관 등에서 공연 및 전시

■ 사례

- 전주시 '전주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 전주시 연고(1년 이상 거주)의 만 20~39세 청년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신진예술가 발굴·지원을 통한 창작품 실연 지원
 - 데뷔작품 지원, 유망작품지원, 점프컨설팅 지원으로 구분하여 총 5팀을 선정하여 지원함
- 울산시가 주관하여 울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생애처음 청년예술 지원' 사업(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 공공지원금의 수혜 경험이 없거나 국공립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해소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
 - 18~39세의 청년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 경비로서 창작준비형으로 250만원, 창작 발표형으로 400만원을 시상금 형태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사업(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작활동과 작품제작에 최대 15백만 원 지원

2) 장거리 출퇴근 비용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주거와 직장의 불일치로 시·군간 장거리 통근 발생
 - 도내 시군간 취업여건이 상이하므로 거주하는 지역 외의 타 시군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 발생
 - 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으로의 통근이 발생하는데, 가깝게는 완주로의 통근에서부터 남원까지의 통근도 발생
 - 전주와 남원간 통근통행량 2,211명에 달함
- 장거리 통근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의 부담
 - 청년들은 취업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도내 시군간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있음
 - 다만, 매일의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용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청년들이 주거지를 떠나지 않고도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거리 통근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필요
 - 전주와 남원의 시청간 공간거리는 약 57km이고, 시간거리는 약 40분으로서 출퇴근 가능 거리이므로 청년들이 주거지를 이동하지 않고도 취업상황 유지가 가능함
 -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주거와 취업에 관련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

〈표 4-3〉 전북 시·군 간 통근·통학 현황

통근·통학량	해당 시·군	1일 통행량	해당 시·군	1일 통행량
10,000명 이상	전주시↔완주군	18,656명	전주시↔익산시	13,987명
5,000명 이상	전주시↔김제시	9,158명	군산시↔익산시	8,491명
	전주시↔군산시	5,845명	익산시↔김제시	5,253명
2,000명 이상	전주시↔정읍시	4,310명	전주시↔임실군	2,968명
	전주시↔진안군	2,784명	익산시↔완주군	2,520명
	전주시↔남원시	2,211명	-	-
1,000명 이상	부안군↔전주시	1,576명	김제시↔군산시	1,397명
	고창군↔정읍시	1,062명	-	-

*출처 : 산업개발연구원, 2014, 완주군 농업농촌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 39쪽, 재인용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도내 시군간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장거리 출퇴근 교통비 지원
 - 도내 시군간을 이동하는 장거리 출퇴근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고용의 지속적인 유지와 청년들의 유출 방지가 가능함
 - 시군간 경계를 넘어 출퇴근 거리가 20km(전주의 남북간 최장길이 18km 고려)를 초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북도내에서 20km 이상을 시군간 출퇴근 하는 청년
- 지원자격 : 준중형차급 미만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청년
- 사업기간 : 매년 선정하여 1년 간 지원
- 지원내용 : 월 15만 원 보조(전주-임실 간 1일 출퇴근 주유비 및 통행료 약 1만원으로 계산시 월 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

■ 사례⁹⁾

- 세종시에서는 ‘세종 청년 일자리행복카(car)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세종시 내 기업 대부분이 외곽에 치우쳐 있어 열악한 대중교통 노선으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만21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채용 또는 채용예정인 청년 근로자 40명에게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렌트차량 임차비를 6개월간 지원
 - 현재 세종시 거주자는 물론 전입예정자까지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9) 세종시 보도자료, 2019.6.24., 출퇴근 차량 임차비 지원‘일자리행복카’시동 참고

5

장

결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종합

1. 전북 청년 실태

1) 전북 청년의 감소

- 전북의 인구 대비 청년의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고, 이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적 경향으로 볼 수 있음
- 전북 청년의 최근 결혼율과 출산율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전북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청년의 감소는 자연감소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전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감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 전북 청년들은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는데 이는 높은 원룸거주 비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많은 청년들이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임
-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으로서 청년들은 주거분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청년들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공간 임차료에 따른 주거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3) 자산 등 금전적 어려움 호소

- 전북의 청년들은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전국과 비교하여 낮고 고용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를 포함한 생활 영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

- 청년들은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가장 불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간부족으로 불만족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서 자산형성을 선택한 청년이 많은데, 이는 주거분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4) 결혼과 졸업의 시기에 지원 요청

-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의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3%로서 가장 많았고, 24.4%를 선택한 졸업의 시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임
- 청년들은 결혼을 일반적인 생애의 과정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적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지만 중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고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5) 문화와 건강에 대한 수요

- 청년들의 건축 소비지출 항목 중 문화·여가비는 외식비와 식료품비 다음의 세 번째로 줄이는 소비항목으로 조사될 만큼 문화소비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문화소비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청년들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여가활동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질환이 발생되었을 때 병원 진료를 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청년들은 주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지만 경제적 부담의 영향이 작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2. 청년 지원 방안

1) 지원 방향 및 전략

- 전국과 비교하면 전북 청년들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형태의 임차주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청년들의 연령별 또는 생애주기별 수요가 다르므로 청년들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원 방향을 설정함
-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기간 동안의 청년이 가지는 사회적 문제와 수요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과 충족이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함
- 청년들의 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이 일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가정 중심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
- 따라서, 청년 지원은 청년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 집단에 배려하면서 생애주기에서 전환기에 필요한 수요에 맞춰 청년의 수요와 기존 지원정책 실태를 결합한 복합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2) 전북 청년 지원 방안

(1) 청년의 수요에 대응한 지원

- 독립한 청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주거 해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청년의 여유로운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전북도에 취업하여 정착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기여를 연계하여 공공기관 특화형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정착을 독려하고 유도함

- 청년들의 물질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자동차 리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와 이를 통한 창의적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질환 발생시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2) 정책소외 청년 지원

- 많은 청년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34~39세의 후기청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주거 및 자산 분야의 지원정책에서 누락된 이들에 대하여 주택수당과 희망자산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함
- 미취업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 외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취업준비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

(3) 생애맞춤 지원

- 청년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조사된 졸업과 결혼의 시기에 청년의 수요 충족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입한 사회초년생에게 다음의 생애전환기 준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결혼과 육아에 따른 필요한 비용과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4) 보편적 지원

-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인적자본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관련 문화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주거와 취업 간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장거리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2절 정책 제언

1) 사회참여 지원

- 경제의 저성장과 그에 따른 청년의 취업난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청년들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많은 지원정책들이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청년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의 생활의 불안정은 일부 저소득계층의 청년에만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정책들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금전적 차원에서 지원됨에 따라 청년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부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 정부의 정책은 청년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성격의 역할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경제주체로 성장해야 함
- 따라서, 청년지원정책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지역 애착 제고

- 전라북도의 청년지원은 전북도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살핌으로서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이 국가와 각 지자체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전북도의 청년이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즉, 금전적 이익보다 심리적 만족감을 받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커질 것이고, 이것은 청년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북에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작용될 것임

3)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 마련

- 청년지원정책들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 계층과 특정 내용에 대해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들은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음
- 또한, 지원되는 내용과 범위에 입각하여 한정된 틀 안에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한계점도 제기될 수 있음
- 청년은 다양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청년마다 소질과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활동의 폭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지원하는 대상이나 방법, 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청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발굴이 필요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 청년의 삶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2020,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2.19.)
- 강동우, 2018,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8년 5월호
- 김기현,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 김기현, 2017, 청년 정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44호 제5호
- 김기현 외,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종욱, 2018,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부산발전연구원
- 김유현 외4, 2019, 경상남도 청년도시모델 연구, 경남연구원
- 김지경·변금선,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외2,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외2,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춘섭, 2018,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청년문제 연구, 충남연구원
- 산업개발연구원, 2014, 완주군 농업농촌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201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안양시, 2017, 안양시 청년 종합실태조사
- 오기호, 2018,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경기연구원
- 이우형·서충원, 202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이윤주 외3,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정주, 2008,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이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철선 외9, 2016,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최은영 외, 2018,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도시
연구소

전라북도, 2020, 2020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정책연구 2020-15

전북 청년 실태분석을 통한 주거·생활안전 지원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10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99-8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